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92 1982년4월8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April 8, 1982

APR 8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프로축구

17일 CNE구장서 오픈게임 본사, 블리자드 입장권예매

◆스포츠퀴즈 정답자 추첨을 한 블리자드소속 킴·크로프착양(왼쪽)과 로라인·퀸양이 상품 브리자드 홈게임 입장권을 보여주고 있다.

스포츠 퀴즈정답 "조영증"
김용성군 · 조석남씨 당첨

축구시즌이 돌아왔다. 금년도에는 특히 4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월드컵대회가 스페인 마드리도에서 6월부터 거행될예정으로 있어 온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4일 시즌오픈한 북미 프로축구(NASL)의 토론토 블리쟈드팀과 입장권 판매계약을 맺은 본사는 입장권을 본사및 브램돈스포츠사등 예매처를 통해 7일부터 예매중이다. 블리쟈드팀은 NASL동부지구에 속해 뉴욕·코스모스 전년도 우승팀인 시카고·스팅 강팀들과 맞붙어 흥미진진한 빅게임을 펼칠 것 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년 6월16일에는 미 포트랜드 (팀버즈)에 소속된 한국인 조영증(28) 선수가 토론토 CNE스타디엄에서 거행될 블리쟈드와의 경기에서 맹활약을 보일 것으로 많은 축구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본사는 17일 저녁8시 블리쟈드와 불사팀과 홈게임 오픈전 입장권을 상품으로 내걸었던 제1회 스포츠퀴즈 정답자가 선발됐다.

7일 오전 CNE스타디움내 블리쟈드사무실에서 있은 추첨에서 정답자 22명중 김용성군과 조석남씨가 추첨됐다.

전화 혹은 엽서를 통한 많은 응답자가 있었으나, 정답인 조영증선수 이름을 바로 맞춘 사람은 22명이었다.

조선수는 한국에서 중앙대및 해군팀 소속으로 선수생활을 했고, 81년 포트랜드팀에 입단할때까지 한국 국가대표 축구주장을 지냈다.

지난 5일 본사와 통화한 조선수는 "토론토 교민들을 만나게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블리쟈드와의 토론토게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4개부문시상 「한인민축상」 5월15일 추천마감

본사 제정 「한인민축상」 제2회 수상후보를 캐나다 전역에 걸쳐 공모중에 있는 한인민축상위원회(위원장 구상회)는 후보자 접수를 5월15일로 마감한다.

학술·예술·공로·봉사의 4개부문에 걸쳐 시상하는 이 민축상은 캐나다 각지역의 한인회, 교회, 노인회, 동창회등 각종단체가 해당후보를 추천하고, 개인으로 추천할 경우10명 연서의 추천을 필요로 한다.

(추천서 양식 참조)

민축상위원회는 지역 교민사회에서 공이 큰 인물을 추천하여 수상에 도움을 주는 일은 이 땅 전체 한인사회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명예도 되는 일 임을 널리 추천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추천마감 : 5월15일
◆보낼 곳 :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전화 : (416) 533-2361

추가병력 투입 알젠틴 결전대비

(부웨이노스아이레스―알젠틴) 알젠티나는 영국함대와 대항키위해 수 백명의 병사들을 6일 포크랜드에 추가 투입했다.

알젠티나의 군사소식통들은 포크랜드분쟁을 해결키 위한 외교적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 현재 이곳을 향해 오고 있는40척의 영국함대와 알젠티나 함대간에 해상전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알젠티나의 니칸도·멘데즈외무장관은 6일 워싱톤에서 헤이그 미국무장관과 만나 미국의 협상중재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비쳤다.

멘데즈장관은 "양국의 명예를 다치지 않는다면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알젠티나가 지난2일 영국식민지 포크랜드군도에 4천명의 군인들을 투입, 무력점령하자 영국은 이에 즉각 대응,함대를 동 해안에 파견했다.

헥타·디·피로 알젠틴해군장관은 소련 잠수함들이 알젠티나 양곡을 실어나를 것이라는 보도를 부인했다.

알젠티나는 현재 소련과 양곡협정을 체결, 밀등을 소련에 수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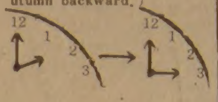
한편 런던에서 야당의원들의 사임요구를 받은 영국의 대처수상은 "지금은 우리가 단결, 힘을 길러야 할때이다"며 사임을 거부했다.

야당의원들은 영국정부가 알젠티나침공 10일전에 이미 이 사실을 알았다는 보도에 분개, 수상및 관계장관 사임을 강력히 요구했었는데 대처수상은 이 보도를 부인했다.

영국정부는 참공 10일전 탐지라는 보도를 전적으로 부인했다.

4월25일 기해 섬머타임

올해 섬머타임이 오는25일(일)새벽2시를 기해 실시된다. 낮이 길어짐에 따라 이때부터 10월 하순까지는 시각이 1시간씩 빨라진다. (Spring forward, Autumn backward.)



26,136가구 생계수당으로 연명

메트론·토론토에서 생계수단(웰페어)로 생활해나가는 가구수가 26,136가정으로 10년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2월이후 한달만에 939가구가 늘었고 지난 3개월간 매월 평균 930가구씩 새로운 웰페어가정이 늘고 있는 셈이다.

메트로 공공봉사부는 지난 71년 29,261가구가 웰페어를 탄것이 최고기록 이었지만 연방실질 보험과 주정부의 웰페어 지급 규정이 바뀌어 메트로시의 웰페어 신청수가 줄었으므로 단순한 숫자 비교만으로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해 경제악화가 서민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시사했다.

―알 림―

오는 9일은 부활절을 앞둔 성금요일(굿·프라이데이)로 법정 공휴일이므로 본사는 휴무 합니다.

따라서 12일자(월) 토론토판은 쉬고 한국일보는 13일자(화)와 합본 발행합니다.

광고는 10일(토)에도 계속 접수 합니다.
전화 533 - 2361

◆포크랜드를 향해 가고있는 영국함대 HMS 허므스호에서 훈련중인 영국해군들. 무적함대라 불리우는 영국함대들의 출동은 56년 수에즈운하사건이후 첫 출동이다.

"밤중 지하철은 불안하나 다운타운보다는 낫다."
―토론토여성들의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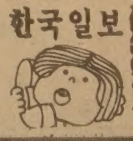
토론토시민교통위원회(Toronto Transit Commission)의 조사에 의하면 밤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성의 절반가량이 안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조사에 응답한 여성중 45%는 "밤중의 서브웨이는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설문에 동의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48%는 "밤중에 다운타운 거리를 걷는 것은 불안하다"고 말해 결국 밤중의 다운타운 거리보다 서브웨이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성이 조금 더 많다

지하철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여성들은 그 이유를 치한들의 증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밤 9시이후 많은 경찰관과 정복을 입은 승무원들의 순시를 원하고 있다.

지하철, 버스, 전차이용자의 57%는 여성이고, 올해 총이용자는 4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찬 · 아카데미」 창간
안상엽목사 발행, 기독교주간지

◆안상엽 목사

안상엽 목사는 기독교주간지〈크리스찬·아카데미〉(The Korean Christian Academy in Canada)를25일 창간됐다.

"기독교적 윤리와 도덕의 근본뿌리를 만드는 믿음과 회망,사랑에 토대를 세우고 전체 교회와 교인, 동족·형제들사이에 피와신경을 연결시키는 역할을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창간된 이 신문은 교계소식, 지상설교, 성구해설을 비롯, 뉴스 화젯거리등을 타블로이드판 8면에 담았다.

오랫동안 미국과 캐나다 한인교회에서 시무해온 발행인 안목사는 지난 12월 말까지 선교교회에 몸담았었으며 본 토론토·한국일보와 캐나다 뉴스에 약3년간 〈기쁜소리〉(지상설교) 칼럼을 연재한 바있다.

각한국식품점에서 현재 무료로 배부되는 이 신문의 구독신청은 : 165 Cherokee Blvd. Unit 130, Willowdale, Ont M2J 4T7 Tel: 493-0615 안상엽 목사로 하면 된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5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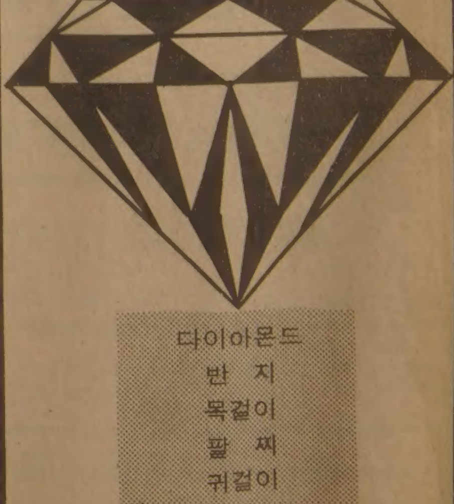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 은, 주식, Bonds, RRSP에 대한 문의는
361-3428(B), 447-1374(R) : 강 상 욱
RRSP를 왜 남에게 관리시키는가? 자기돈은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기존 RRSP를 자기관리 RRSP로 옮기는 데는 비용은 전혀 들지않으며, 유지관리비로 1년에 $100만내면 된다. 자기가 관리하면 투자결정은 자기의 원하는대로 할 수 있는 장점이있다.

해밀톤 한인회
춘계친목의 밤
본 한인회에서는 회망의 새 봄을 맞이해 아래와 같이 "친목의 밤"을 마련 했읍니다.
이 지역 교민 여러분들 모두 참석하셔서 깊어가는 신춘의밤에 친목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일 시 1982년4월17일(토) 오후 7.30 부터 ―밤늦게까지
장 소 ST. CYRIL PARISH HALL 204 PARK ST. NORTH HAMILTON
준비된것 : 칵테일주류일체. 부페식식사 노래자랑을겸한 오락프로 음악과 더불어 댄스파티
기타 : TV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이준비(무료)
연락처 : 662-7924, 385-2851, 528-4881
※특별출연 : 권순근과 그의악단
1982년3월25일
해밀톤지구 한인회
회장이영구외임원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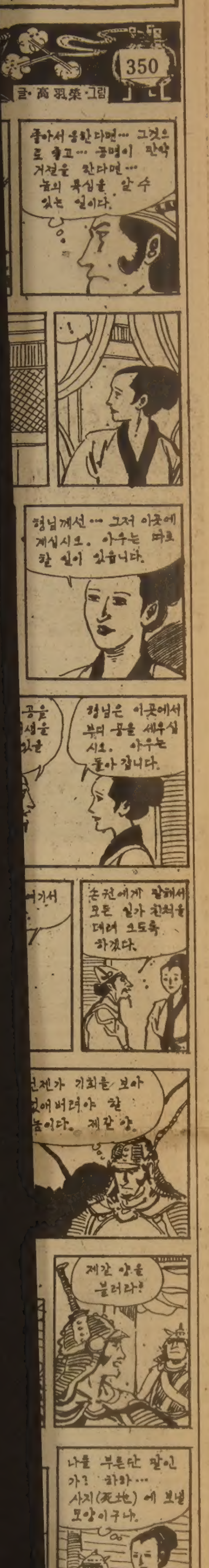
점심특별 스페샬
기 간 : 1982년4월 말 까지
시 간 : 12시~오후2시까지(월~금)
$3.50 : 냉면, 짜장면, 곰탕, 짬뽕, 제장백반
$5.00 : 유부초밥, 생선초밥, 회덮밥, 김초밥
4월12일부터 해장국 출현
오전9시 ~ 밤1시
한국서 일류요리사 한국관에 오다!
한식및 궁중요리사 : 김옥자 • 일식전문요리사 : 김우현
한 국 관
대표 : 나 옥 녀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결혼 예물, 보석시계

다이아몬드
반 지
목걸이
팔 찌
귀걸이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31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g the Korean-Canadians
9./yr, $9./mo. 구독료



순수익 4,500달러

중앙장로교회 바자

중앙장로교회(담임목사: 정관일)는 지난3일(토) 여전도회가 주최한 바자회에서 순수익 $4,500를 올렸다.

동교회 여전도회는 작년부터 새교회 구입을위한사업으로 바자를 열어 그 수익금을 모두 새교회 구입기금으로 위탁했다.

지하친교실의 바자회장 벽에는「큰 성전을 주시옵소서」라는 싸인이 붙어있었고, 식품부, 의류부, 화초부로 나뉘어 바자품목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있다. 식품부의 품목은 고추장, 된장, 김치, 약과, 장아찌, 떡류 등 이었다.

아침부터 비가와서 작년보다 입장자가 적었으나많은 물품이 다 팔렸다.

중앙장로교회는 새 성전을 위해 딕시·로드× 레이크쇼어 부근에 이미 넓은 부지를 확보, 건축비를 모으고 있다.

한국일보
533-2361

◆중앙교회의 새 교회구입 모금 바자광경

◆새 웨스트·엔드 Y회관 개관식광경. 오른쪽부터 아트·이글튼 시장, 헨리·라밧트 메트로Y회장, 잭·아크로이드 시경국장등의 모습이 보이고 밑의 기념패는 개관을 정식으로 알린 패말이다.

새 웨스트·엔드Y 개관

수영장·체육관·옥상놀이터까지

3백만달러 이상의 공사비를들여 새로 단장된 토론토 서부 YMCA(West-End Y.) 회관이 정식 개관됐다.

지난3일밤 8시 아트·이글튼 시장, 잭·아크로이드 메트로시경국장, 니콜라스·레룩 온타리오주 교도장관 CHIN 방송국장 자니·롬바르디등 내빈들이 참석한가운데 거행된 개관식에서그동안 건물보수및 기금마련에 공이큰 인사들 표창및 정식개관선언에 이어성대한 칵테일·파티가 거행됐다.

이날 한인Y합창단(지휘 안병원)은 축가를, 전인숙여사는 딸 전명희양의 반주로 블레스·디스·하우스를 선창했다.

한인 Y(총무 김창열)도 이미 새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 전화번호는 종전과 같은 536-1166이다.

한국전쟁의 비화공개

조셉 굴덴씨 기밀자료활용 저술

한국 전쟁시 이승만대통령이 휴전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면 미국 CIA에 의해 쿠데타를 당할뻔했다는 등의 비화를 담은 한국전쟁사가 미국인 작가에 의해 출판됐다.

Joseph C.Goulden씨가 최근 펴낸 690페이지의 단행본「KOREA」는 한국전쟁사중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들을 정보자유법에 의해 검토하고 저술한 최초의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와 합동참모부,극동사령부등의 자료와 정보보고를 비롯하여 맥아더 장군의 비밀 전문,릿지웨이 장군및 맥아더의 보좌관의 회고기록등을 참고로 하여 분석한 이 저술은 북한의 남침준비로부터 비화를 풀어내려간다.

이 저술은 한미 대통령, 국무장관 미군 사령관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분석하고 있다. 우선 북한은 남침준비를 하면서 남한과

"CIA는 이승만박사를 제거하려했다"
"맥아더는 영웅이 아니었다"등

미국을 기만했으며 전쟁발발 며칠전에 방한했던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이 미국의 한반도 불간섭 정책과는 달리 한국에 미군 개입을 이미 서면으로 전의한 것이 밝혀졌다.

통산 맥아더가 만주 폭격과 압록강 건너 진군을 주장했다고 알려졌으나 1950년 중공군 개입후 그는 후퇴허가를 12월에 합동참모부에 요청했음을 이책은 밝히고 있다. 또한 막후에서 맥아더를 트루만 대통령이 해임하는 과정이 밝혀져 있고 한국전쟁의 참 영웅은 맥아더가 아니라 인천상륙작전 계획을 수행해낸 해병 사령관 올리버 스미스 장군과 맥아더 해임후 사기가 저하된 유엔군의 정신을 회복한 릿치웨이 장군이라고 밝혔다.

53년 휴전을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은 완강히 휴전반대를 하며 한국민의 데모를 고취했는데 만약 끝내 그가 휴전에 불응하면 실권시키기 위해 미국 CIA가「오퍼레이션 에버레디」라는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했다고 이 책은 밝히고 있다.

마치 제임스 본드의 007같은 모험담도 있는데 전쟁당시 주한 미국 CIA 책임자였던 한스 토프트씨가 인도에서 의약품을 싣고 중공으로 가던 놀웨이 선박을 비밀리에 해적질 하는데 성공한「오페레이션 TP-스톨」의 비화도 있다.

이미 11권의 책과 한국에 관한 책도 1권 출판한 그의 새 책은 한국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이나 역사학도의 안목을 새롭게 할수 있는 것이다.

출판사는 Time Books, 정가는 22달러50센트.

◇토론토 교외에서 점심 또는 저녁 시간을 이용 나체춤을 공연하는 스트립 댄서

"하나만 걸치면 된다"

누드에 새판결

온타리오주 스트립 댄서들은 하의를 완전히 벗지는 못한다는 종전의 규칙대신 상의건 하의이건 아무거나 하나만 걸치면 된다는 판결이 났다.

뉴욕, 몬트리얼등 대도시들과는 달리 온타리오주의 스트립댄서들은 하의를 완전히 벗지 못한다는 규정때문에 입건을 당하는수가 많았다. 댄서들은 일단 스트립쇼가 진행되면 흥분한 관중들의"다 벗으라"는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를 당하기 때문이다.

온타리오주 대법원의 윌리암·말로니판사는 5일 캐나다에 사는 성인이면 누구나 자극적인 스트립댄서들의 공연을 자제력을 갖고 관람할 수 있다고 판결 스트립댄서 수잔·그레이스양의 누드로 인한 공공질서문란혐의를 기각 시킴으로써 스트립쇼 흥행사들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그레이스양의 변호사 로버트·스키퍼씨는"이판결은공중도덕관념의 자유화와 대중들의 자제력을 믿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했다"고 말했다.

스트립댄서인 수잔은 80년9월 에토비콕의 한 술집에서 공연중 사복경찰에의해 누드혐의로 체포됐었다. 수잔은 이날공연중 T셔츠와 하의G스트링을 입은채 공연하다 처음에는 T셔츠를 벗었고, 나중에는 T셔츠만 입은채로 공연했었다.

말로니판사는"그레이스양의 행동이 비도덕적은 아니다"면서"이날공연에 모였던 120명 성인들이 댄서의 행동을 비난하기는 커녕 오히려 열광했으므로공공질서를 문란케한 것이아니다"고 판단했다.

한편 그레이스양을 기소한 검찰측 로버트·맥기검사는 "이 판결이 계속 시행된다면 더이상 댄서들을 나체공연혐의로 구속할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 정—

지난 5일(월)자 토론토·한국일보의 1면 머리의 '실현 불매운동 신중검토' 기사중 "담배는 도매가격의 10%"는 "담배는 도매가격의 1%"의 잘못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자녀양육은 팀·플레이

아버지 역할도 중요(1)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은 종족보존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자녀를 낳기만 했다고 부모의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니다. 인간다운 인간으로 기를 의무가 있는 것이다.

흔히 자녀의 양육은 어머니의 일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부·모 양쪽의 공동책임이다.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7~8세까지 아버지가 맡아야 할 역할을 소개한다.

◆ 아버지의 역할 ◆

자녀가 태어날 때 특히 첫 자식을 가졌을 때의 자랑스러움과 대견함은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모두 경험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쁨이 사라지면서 아버지는 일상의 일(직업)로 되돌아 가고, 자녀의 양육은 어머니에게 맡겨지는 것이 상례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일까?

멀지 않은 과거에 아버지들은 하루 12~13시간씩 일해야만 했다. 일을 마치고 온 아버지는 다음날을 위해 조용히 쉬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자녀양육은 자연 여성(어머니)의 일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하루의 근무시간도 평균 8시간으로 단축되었고, 대략 50%의 캐나다 주부들이 취업을 하고 있다. 많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전통적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부 남성들을 혼란시켰다. 남성들은 부인이 돈을 벌어 오는데서 자기의 남성적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어린 자녀의 코를 닦아주는데 능숙해짐에 따라 남성의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자녀양육의 일부분을 담당, 습관이 되면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놓쳤을지도 모를 재미있고 보상적인 삶의 일부분을 발견할 것이다.

자녀가 기고, 걷고, 말하는 것등 자라면서 한가지 한가지 기술을 습득하게끔 도와 주고, 지켜보는 것은 비할데 없는 낙이다.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함께 참여하면 아버지와 자녀사이에는 중요한 관계를 다지는 굳건한 기초가 생긴다.

◆팀의 일원으로서의 아버 지◆

자녀양육은 직장에서의 교대근무나 가게에서 하루종일 고객들과 상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풀타임 주부의 경우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올때쯤 되면 가사와 애보는데 이미 지쳐있기 쉽다. 특히 잘 앓거나 까다로운 아이를 돌볼 때는 더하고 이런 어머니에게는 휴식이 절대 필요하다.

이럴때 아버지의 협조가 필요하다. 부부가 자녀양육에 팀 플레이 (Team Play)를 잘 이루어갈 때 부부간의 불평과 불만은 줄을 수 있다.

아버지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나 몇가지 제안을 해본다.

부부가 팀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우선 상대방의 장점, 약점및 인내의 한계를 바로 아는 것이다. 이것은 부부 양쪽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돋보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같은 방법으로 한쪽만 희생당한다는 인상을 없앨 수 있다.

특히 부부가 직장에 나갈때 자녀양육을 위한 팀플레이는 필수적인 요소다. 부부가 다 일하면 그들이 원하는만큼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짧은 시간을 자녀와 같이 지내더라도 애정이 담긴 교제는 자녀의 정신성장에 도움을 준다.

각 가정마다 무엇이 옳고 자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이 있다. 어떤 가정에서는 2살난 자녀가 응접실 소파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귀여움으로 봐준다. 다른 가정에서는 응접실은 어른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는 어른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믿는다.

종종 무엇이 안전한가에 대해 의견의 불일치가 생긴다. 어린이들은 배움을 위해 탐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모험심이 많은 어린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한다. 옥외난간이나 높은 나무에 기어 올라가 의기 양양하게 자기좀 봐달라고 소리칠때 많은 부모들은 자랑스럽기보다는 심장이 멎을 것같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들은 다음의 두 가지 반응중 한가지를 선택한다. 첫번째 범주에 속하는 부모는 어린 자녀가 이런 모험을 즐기는 것은 독립심을 함양시키는 것이므로 억제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번째 범주의 부모는 자녀가 다칠것이 염려되어 무조건 그런 모험을 제지 시킨다.

이같은 양극단은 자녀교육에 좋지 않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안전」과「모험」사이에「올바른 균형」을 찾는 일이다. 예를들어 어린 자녀에게 어느 높이 이상은 올라가지 말라고 제한 한다든지 놀이터에서만 그런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부부는 이런문제가 닥칠때마다 무엇이 올바른 균형인가 서로 의논하여 결정해야 한다.

자녀가 성장하고 아는 것이 많아짐에 따라 부부는 함께 규칙을 정하고 규칙을 변경, 수정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규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자녀문제를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불쾌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않된다. 마찬가지로 어머니는「아버지가 오실때 까지 기다려라」는 식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않된다. 가능한대로 양쪽 부모는자녀 앞에서 상대방의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녀는 정신적 갈등없이 부모를 존중하게 되고 신임할 수 있다.

—계 속—

한인민족상 규약

캐나다 한인사회 및 이땅 문화창달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일보사는 이질문화권인 캐나다사회에서 한국문화를 보전하고 한인사회의 지위향상을 위한 촉매작용을 사명으로 삼으며, 더 한층의 봉사를 위해「한인민족상」을 제정한다.

제1조 목 적

캐나다사회 각분야에서 공이 큰 인사에게 매년 시상함으로써 그 노고를 상찬하고, 정진에 촉진력 구실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시상부문

(가)예술상-캐나다 한인사회에서 문학및 예술분야에 특출한 공로자나 특기자.
(나)학술상-학술 과학분야에서 공이 큰 인사.
(다)봉사상-한인 또는 캐나다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인사.
(라)공로상-한인 또는 캐나다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
(마)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부문의 상을 제정할 수 있다.

제3조 수상자격

(가)캐나다 거주 한인계 개인 또는 단체.
(나)비한국계 캐나다인 또는 단체.
(다)도의적, 법적으로 큰 결함이 없는 개인 또는 단체.

제4조 추천방법

전국의 각단체가 1명씩 소정양식에 따라 해당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추천할 경우, 추천인 10명 이상을 요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가)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과 필요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최고의결기관이다.
(나)운영위원은 약20명으로 하며 임기는 1년, 중임할 수 있다.
(다)차기 운영위원은 회장단및 한국일보사측 협의로 선정한다.
(라)운영위원회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둔다.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마)운영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위원5명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바)운영위원회는 사무국을 한국일보사내에 두고, 그 사원이 사무직을 담당한다.
(사)운영위원회는 연2회의 정기모임과 회장단과 한국일보사가 필요로 할 때에 소집한다.

제6조 재 정

시상및 운영 기금은 일반찬조와 한국일보사의 후원으로 충당한다.

제7조 심 사

(가)운영위원회는 추천된 수상후보를 심사하며, 필요에 따라 당해년도에 한해 전문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나)수상후보가 된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심사에 필요한 규정은 별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 개 정

본 규약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2이상 찬성으로 한다.

토론토 한국일보사 제정

제2회 한인민족상 모집요항

한인민족상 수상후보를 모집하오니 널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 문
(가) 예술상: 캐나다 한인사회에서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사진등 예술분야에서 특출한 공로자나 특기자.
(나) 학술상: 학술적 저술· 발명. 발견· 심포지움등 학계· 교육계에서 공이 큰 인사.
(다) 봉사상: 공적, 개인적으로 한인사회에 희생적 봉사, 그 결과가 뛰어난 인물.
(라) 공로상: 한글교육· 체육진흥등 기타 여러면에서 한인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체육특기등에 공로가 큰 인사.

2. 수 상 자 격
(가) 캐나다 거주자 (한인)
(나) 비한인(외국인)으로서 한민족의 문화선전, 한인계에 이바지한 공이 큰 인물.
(다) 개인 또는 단체

3. 추 천 방 법
전국의 각단체가 1명씩 아래 양식에 의해 해당자를 추천하되, 5월15일이내에 본사 필착토록 해주실 것. 개인적으로 추천할 경우, 추천인 5명이 필요함.

1982년, 4월 일

한인민족상위원회
위원장 구 상 회

한인민족상 후보 추천서

대상자또는단체 : (연령 : 성별 :)
주소및전화번호 :
시 상 부 문 :
추 천 내 용 : (별지에 가능한한 자세히 기재, 관계증빙서류, 사진등 동봉요망)
추천인(단체) :
추천인주소· 전화번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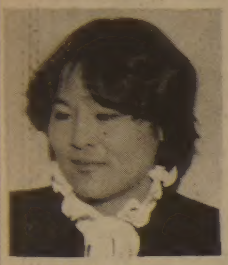
보 내 실 곳 : THE KOREA TIMES TORONTO
1025 DUPONT ST. TOR. ONT. M6H 1Z7

함
LTD.
섭

(수 상)

"아임 코리언"

정 봉 희



△정봉희씨

뜨락의 소롬한 봄빛이좋아 오늘 모처럼 6살난 조카와 화려한 봄나들이를나섰다.

때묻은 조카의 손목을잡고 오랜동안 못가져본이민생활의 여유를 가름하면서 "개나리"노래를 들려주노라니 왠지 고향토담집 양지녘에 조무라기 몇이서서 넌집 남벽에 내 시선을 머물게 한다.

"개나리때 뿅뿅뿅…""이모 뿅뿅 뭐야?" 자꾸 되묻는 조카의 성화다.

이곳에서 태어난 6살난 조카가 병아리며, 뿅뿅이무슨 소리인지 알리 없지만 그래도 신난듯이 서툴게 입을 비틀거리는 그 앙징스런 재롱이 겨울바람결 분홍빛 봄빛보담도 더 밉살스레 보인다.

한참 조카의 재롱을 대꾸해주다 앙징스럽게 화내는 모습이 이뻐 골려주려고"아 유 자팬이스?(Are you Japanese?)."아유 캐네디언?"(Are you Canadian?)하고 슬쩍 꿀밤을 주면 "No No. 아임코리언"이라고 대뜸 열이올라 얼굴에 채 가시지도않은 어린 핏줄이 유난히 드러난 얼굴빛으로"왜 이모는 날 자꾸 바더(Bother)해? 이모는 자팬니스이고 난 코리언이야"

한술더 뜨는 재롱과 울상이된 조카의 그 모습에서 난 가을의 풍요로운 축제의 절정의 농부가된 기분이었다.

"존(Jown)은 이름도 이모와 다르고 한국말도 잘할줄 모르니까 재팬이스고 캐네디언"이라고 했더니또 천진무구한 동심에 울화가 치밀어 올랐던지 "이모는 크레이지! 엄마랑 아빠랑 이모랑 모두 코리언인데왜 나만 자팬이스고 캐네디언이야? 나 아빠한테 가서 물어볼래."

뾰루퉁한 입이 반쯤 열린채 투덜대고 한발자국앞을 가로지르는 그 개구장이 뒷모습이 요술공처럼이모의 마음을 방망이질치게 한다. "핏줄이란 이렇게무서운 걸까?"

가슴이 만조된 밀물처럼 벅차 뿌듯하다. 깊은 수만리 해수속에서 진주빛을발견한 것처럼 소리쳐 울부짖고싶다. "그래 장하다. 넌 진정한 코리언, 내 자랑스런 조카이구나."

"코리언", "코리언", 이렇게 중요한 단군의 자손이던가? 그 병아리 뿅뿅같은 입에 뛰어가 냉큼 뽀뽀라도 해주고 싶었다.

손바닥만한 조국을 얻어본다. "코리언""아임 코리언"이라고 상기된 얼굴빛으로 울상이된 어린 조카녀석도 조국을 알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물며 내피와 살이 참여해 굵어진 우리가 조국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내 몸하나 썰물처럼 빠져나왔다고 방종과 매국된행위를 자유롭게 양심에 가책됨 없이 시도해도 된단 말인가?

우리옛 선인들의 선량한 그 순백의 속성은 어디로 흘려 보냈는가? 서로돕고 상호공존하는 그 아름다운 미풍양속은 누가 날려보냈는가?

용서할수없는 치명적인 행위와 역사적 오명을 어느누가 다독거려 주겠는가? 조국을 잃어 동족상잔의 비극을 체험한 이웃나라들의 그 처절한 국민들을 우린 담건너 이웃집, 내앞자리 뒷자리에서 대하고 있지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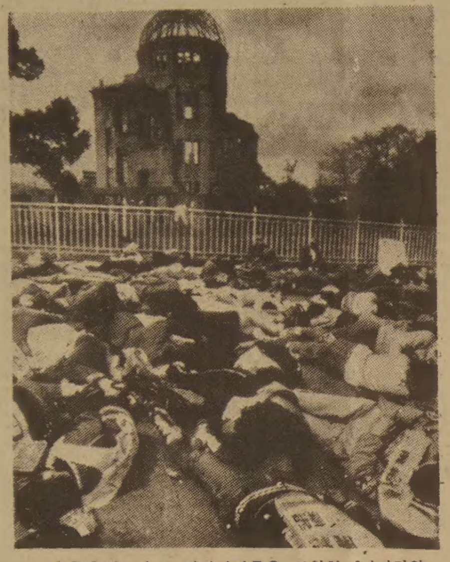
배를타고 기약도없이 피난길에서 밥낫을 물위로건너온 그들은 뭘 간파했을까? 폐허돼가는 조국을등지고 마지막 피쓰러져 숨져가는 부모형제같은 혈육에게서 그들은 뭘 배웠단 말인가? 이제와서 조국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외우고 목놓아 그려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어리석고 처절한 조국 없는 무서운 고아들! 왜 그들은 소잃기전에 외양간을 돌보지 않았던가? 후회가 있을수 없는, 아무리 피통곡해도 되찾을수없는 소중한 조국을 왜 그들은 진작 수호하지 못했단 말인가.

누가 부모없이 태어났는가? 누가 조국없이도 살수있다고 말하는가? 이따사로운 보금자리 둥지없이 감히 누가….

복된 자유와 영원한 평화를 누리리라고 장담하는가? 참으로 협소한 땅덩이, 이 속에서 우린 잔뼈가 굵었고 그 고사리같은 손이 이토록 어른손이 되었잖는가! 누가 조국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말하는가? 언제이 치졸한 인간이하의 이민집단이 자유한강물에 멱감고 백두산 고지에까지서 울고속버스로 통일로를누비면서 신혼여행을 갈까?

우리 솟은해도 하나듯이조국도 하나요, 겨레도 하나임을 가슴깊숙이 간직하고 온 우리에 자유의 푸른물결이 넘치는 날이 꼭 오리라는 벅찬 기대에 엄지손가락을 꼭 깨물어도 보자.

앙상한 겨울잎새로 개구장이 조카의 청바지색이멀리 시야에서 멀어져감을 느끼면서 "아임 코리언"이라고 화난 뾰루퉁한 조카의입에 달려가 뽀뽀를 꼭 해주련다. 그리고"넌 자팬이스도 캐네디언도 아닌 오로지 코리언"이라고 나지막이 다독거려 달래주련다! 오늘은 하늘빛이 어떤 색조였을까?



◆죽음의 데모—어린아이들을 포함한 9만여명의 일본인들이 21일 히로시마에서 핵무기전면 철폐를 요구하며, 핵무기로 인한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 이들의 데모현장 앞쪽에 있는 둥근지붕 건물은,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세계최초 원자폭탄으로 일부가 파괴된 것이다. 〈히로시마, 일본 〉

〈매일연재 캐나다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142)

팔리·모왓 원작·원재훈 옮김

얼마나 시시한 선물이냐고? 나는 이 담배 파이프가 1세기를 두고 내려온가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부친 엘라이투트나의파이프였던 것이다. 이 파이프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아왔다. 이것은 엘라이투트나가 죽었을때 자기가 생전에 쓰던 물건으로 저 세상에 가져가도록 그의 무덤에 함께 묻혔어야 할 물건이었다. 이제 이것은 내 손에 넘겨져서 이땅에서 벗어나 내가 카불루나이트의 세계에 이할미우트의 목소리를 들려줄 필요가 생길 때 따끈 따끈하게 연기를 피워올리며 내 손에 쥐어져 있을 것이다.

나는 나의 의형제인 오텍이 조금 울지 않았나 하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산너머로 낮게 불어오는 찬 바람에 실려오는 습기탓이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왜 울어야 했을까? 백인은 그땅을 이 사람들에게 남겨두고 떠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몇 년이라고 잴 수 없는 기간내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큰평원으로 다시 돌아와야할이유가 전혀 없었기때문이다.

이 강은 흘러내려간다기보다는 어떤 어마어마하게 큰 땅속의 용광로에서 뿜어나온 큰 화강암 더미 위로 강물이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려간다는것이 맞을 것이다. 만일 지옥의 불이 꺼져버려 그속을 들여다보았다면 이런 세상처럼 보였을 것이다. 강물은 이런 험악한 대지위로 격노처럼 흘러가면서 물방울과 강물에 떠다니는 나무조각들을 강주위에 아무렇게나 내던지고 있었다.

5일동안 우리는 약100마일을 내려왔다. 얼마나 많은 급류가 있는지 헤 아려 보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어떤급류는 거의 몇마일씩이나 계속되었으며 중간에 잔잔하게 흐르는곳은 거의 볼수가 없었다.

계절적으로 카누로 여행하기에는 너무 늦어졌지만 비가 퍼붓거나 진눈개비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여행을 계속하는것 외에는 다른도리가 없었다.

처음 우리가 떠날때 식량이 충분하지 않을것 같아서 염려했지만 지금 우리는 짐을 많이 싣고오지 않았던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는지 몰랐다. 수차례에 걸쳐 카누가 가벼웠기 때문에 날카로운 바위에 찢기지않고 얕은 급류를 무사히 빠져나올수있었던것은 천만다행이었다.

그 험난한 여행도중 위험스러운 바위와 소용돌이치는 강물외에 두가지를기억해낼수 있다. 첫번째는우리의 앞에있는 강언덕위에 두마리의 수 카리브가 잔뜩 긴장해가지고 서로 뿔을맞대고 발정기때의 싸움을 하고있던 광경이었다.

나는 이 광경은 우리머리위에 폭풍이 오는 잔뜩 찌푸린 날씨에 잠깐동안쳐다보았지만 내 기억에는상당히 장엄한 광경처럼 남아있다.

두번째로는 강둑에 한돌무더기를 보고 이누콕으로 잘못 착각했던 일이다. 처음 5일동안 이 험난한 강을따라 인간을 찾아볼수 없었다. 우리가 이 돌무더기를보고 이제 급류가 끝이 난 모양이라고 생각되어 카누에서 내려 가까이 가보았다. 그것은 이누콕이 아니었고 편편한 바위돌을 어린아이의 무덤에 세워둔 것이었다. 늑대와 여우가 와서 파먹고 흰 뼈가 여기저기 주위에 흩어져 있었다. 이 두개의 기억 이외에는 카누밑에 시커멓게 깔려있는 바위들과 흰거품을 일구며 파도치는 급류에시달린 기억밖에는 없다.

9월말에 우리가탄 카누가 허드슨베이의 넓은 바다로 짠 바닷물 때문에 찢겨진 상처의 아픔을 참지 못하는듯이 바짝 줄어들어 가지고 떠내려 왔을때 우리는 끝장이 나는줄 알았다. 그때 바다쪽에서 불어오는 폭풍과함께 눈앞을가로막는 심한 눈보라가 쏟아졌고, 다행히 우리는 암초를 발견하고 몇시간동안 찬 바닷물에 허리까지 잠기고 파도와 바람이 그칠때까지 꼬박 서서 기다려 목숨을 건졌는데 거기서우리는 하루낮밤을 보내야만 되었다.

우리는 북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올라가다가 에스키모들이 사는 긴 노란집들 뒤에 겨우안착하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그 암초에서 보내던 날밤 다망가진 우리의 카누로는 남쪽으로 100여마일이나 떨어진 처칠까지 항해한다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에스키모들이 사는 부락에서 일주일을 보낸다음 우리들을 찾아헤매던 캐나다 공군비행기에 실려 그곳을 떠나왔다. 마지막으로나는 점점 멀어져가는 말없는 바렌땅을 내려다 보면서 내가 깊숙이 알고 있는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생한 기억을 갖고 떠나왔던 것이다.

나의여행은 끝이 났지만 나는 거미줄 같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무엇인가더 강렬한 것으로 아직도 바렌에 집착하고 있었다.

나에게 그들의 눈을 빌려주어서 그들의 지나간어둡고 세상에 알려지지않은 과거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통활할수 있게 해준 이 평원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속 깊이 영원히 꺼지지않는 애정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이사람들로부터 받은 큰 선물이며 나또한 갚아야 될줄로 믿는다.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MOZART COLLEGE OF MUSIC

음악원생 모집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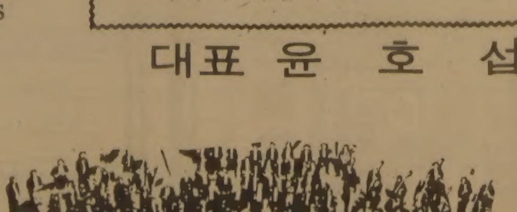
본 음악학원은 최신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으로 구성된 음악전문학교 입니다.

교수진 : 명문음악대학을 수료한 BA, ARCT학위 소지자로서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있는 교사들로 구성됨.
교수명 : GRACE SCOTT, ORELL FRITZ, LYUBOV SHILLER, SEMY SHILLER, ALICE YU, TATIANA GUTLIN, LAMBERT DANIELLE, KATHY SAUVE, TANYA DEMENTEVA, MICHAEL BRACKEN, HYE S YUN, ROBERT ROBERTS JANET KOH, VESNA SALIB, MILANA MULGREW.
과 목 : 피아노, 올겐, 바이올린, 기타, 훌룻, 성악, 이론및 화성.
편 성 :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개 강 : 4월5일
접 수 : 오전9 : 30～오후9 : 00까지 수시로 함.
장 소 :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883—9407
MARKHAM PLACE, DON MILL RD.& STEELES AVE. 881—8211
※보다 상세한 문의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주 구함

본사 확장발전을 위한 뜻있는 자본주를 구합니다.
MOZART MUSIC CENTER LTD.
881—8230
※보다상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윤 호 섭



附價稅기본세율 3%引下

稅制개혁方向 綜合소득세 20단계로 조정

增資소득控除 확대…公·非公開法人稅 통합
銀行·短資·社債·私債등 이자세율 5%높여
醫師·변호사·學院등課稅…預金 비밀制폐지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稅制면에서 지원해주기위해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추진중이다。정부가 추진중인 세제개혁의 주요골자는 기업의재무구조개선을 촉진키위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개정, 기업인이 자기돈을 기업에투자하도록 유도하고 부가세법을 고쳐 기본세율을 현재의13%에서 10%로 내리면서 면세대상을 대폭줄여 장기적으로는 공평과세의 최대의장애요인이 되고있는 예금및적금의 비밀보장에관한 법률을 폐지할방침이다。

2일 재무부에서 밝혀진소득세법개정방향은 종합소득세의 소득계층을 현행17단계에서 20단계로 다단계화함과 아울러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현행 6천만원에서1억원 수준으로 대폭올리고은행예금、사채、신종어음(CP)등 분리과세되고있는 이자소득에대한 세율을 10%에서 15%로 올릴방침이다。또 법인세는 기업인의 자기자금을 자기기업에 투자토록 유도하기위해 지상배당세율을 낮추고 증자소득공제를 확대하며 비공개법인에대한 세율을낮추고 공개법인세율을올려 단일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소득세법 법인세법개정안을 오는4월말까지 마련, 6~7월께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하고 부가가치세법과 특별소비세법은 연말정기국회에 제안할방침이다。재무부는 특히 오는86년까지는 공평과세의 최대의 장애요인이요 탈세의 주범노릇을 하고있는 예금및적금의 비밀보장에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모든거래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에있다。

주요세법의 개정내용은 다음과같다。

▲소득세법=①현재 17단계 6~60%로되어있는 종합소득세율을20단계 6~60%로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한도를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한다②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와의 격차를 축소하기위해 은행단자이자、사채、CP에대한 분리과세、사채이자소득세율을 10%에서 1…서 30%로인상하되 …에대한 면세한도를 2백만…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한다 ③공개법인의 소액주주에대한 배당세율은 현행 5%를 유지한다。

▲法人稅法=①기업에대한 증자소득공제율을 현행50%에서 확대한다 ②비공개법인에 대한 지상배당과세범위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어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촉진한다 ③차등화되어있는 공개·비공개법인의 세율을 통합, 최고세율을 35%로한다。이에따라 비공개법인세율은 38%에서 3%가, 공개법인 세율은 33%에서 2%포인트가 높아진다。

▲附加價値稅法=①기준세율을 13%에서 10%로 낮추되 3%포인트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토록하고 과세표준을 대폭 현실화 한다 ②면세범위를 내폭 축소, 농축산물중 과일、쇠고기、생선등 일부농산물과 면세되고있는 용역중 의사、변호사、회계사、금융보험、학원、강습소 부동산임대업등 고소득계층에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특별소비세법=이미 생필품에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낮추고 사치품에 대해서는 대폭 인상한다。

◇全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道路鐵道省장관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우디 鐵道장관등 全대통령、勳章수여

全斗煥 대통령은 2일 상오 청와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쉐이크·후세인·이브라힘·만수리 道路鐵道省장관과 오스트레일리아의 해럴드·윌리엄·영 上院의장을 차례로 접견한뒤 修交훈장 光化章을 각각 주었다。

대통령영부인 李順子 여사도 이날하오 오스트레일리아의 영上院의장부인을 별도로 접견하고 환담했다。

全대통령은 또 이날하오 離任하는 메니에·음보 駐韓가봉대사의 예방을받고 修交훈장 興仁章을 주었다。

國際마라톤選手에 만찬격려

全斗煥 대통령은 2일저녁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 함께 청와대에서 金鍾允선수(23·육군3士·사병)등 82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 출전했던 우수선수 1백38명에게 만찬을 베풀고 이들을 격려했다。

이데올로기批判教育 강화

李文敎、전국大學총·학장 緊急회의서 촉구

"問題학생·서클은 拔本塞源 出缺점검…學內연구소 육성"

◇2일상오 긴급소집된 전국 대학 총학장회의。이날 회의에서 문교부는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의 강화와 대학내 지하서클에 대한 적극적 단속을 당부했다。

부산高神大생들의 미문화원방화사건을 계기로 긴급소집된 전국대학총학장회의가 2일 상오10시30분 서울世宗문화회관에서 李奎浩 문교부장관 주재로 열렸다。

전국97개 총학장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문교부는『美문화원방화사건의 범인이 좌경의식화된 대학지하서클회원임을 중시、최근의 학원동향등에 대한 성격과 배경을분석、대학의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을 강화하고 문제학생과 서클의 지도철저、지하서클의 발본색원을 위한 단속강화』등 새학기 학원대책을 중점논의했다。

李장관은 인삿말을통해 이번사건을 계기로 대학본연의 질서유지를 위해 적절한 행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밝히고『방화사건의 범인들이 체포된후 가장 과괴적인 행동의 구상이 학원안에서 배태(胚胎)될수 있었다는 사실을 심각했다』고 전제『학원소요의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단호한 결의와 꾸준한 노력을 정당화하고 더 효과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 방화사건을통해 정부가 이미 시작한 이데올로기비판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게됐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 비판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어 대학총학장은 대학을지킬 책임이있다고 전제、학원내 좌경화문제와 소요에대해서는 총학장들 각자가 책임져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李장관은 또『과거에는 큰 대학들에서 상습적인 소요가 있었으나 이제는 연구와 강의가 소홀한 작은 대학들에 소요의 구습이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그런대학들은 결국 발전의 대열에서 탈락、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잃게될것』이라고 경고했다。

문교부는 이날회의에서 총학장들에게 대학내 좌경화경향을 발본색원키위한 조치의 하나로▲학생들의 휴·결강방지및 출결점검강화 ▲정기적과제물부과▲문제학생의 서클지도강화등을 내용으로 한 학원대책도 아울러논의했다。

문교부는 또 학원내 면학분위기를 높이기위해 학원사태가 발생해도 대학은 휴강없이 수업을 계속하라고 당부하고 이데올로기 비판교육과 대학이 스스로 불순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학내의 기존연구소를 활용하고 건전한 이념서클을 적극 육성키로했다。

「放火사건」등 광범論議

劉총리、3黨대표등 초청 外米導入 처리方案등도

劉彰順국무총리는 2일 하오7시 서울三淸洞 총리공관으로 民正·民韓·국민당등 3黨의 대표와 3役을초청、만찬 모임을갖고 國政전반에관해 광범위하게의견을나눴다。

劉총리 취임이후 처음열린 이날 모임은 정부와 국회、정당간의 對話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마련됐는데 이자리에서 韓美 안보협의회 결과와 부시美부통령의 訪韓、外米도입문제의 처리방안、釜山 美문화원 放火사건등 당면한國政현안 전반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

정부측은 이자리에서 최근 열렸던 韓美안보협의회와 美문화원 防火사건의 수사결과등에대한 자세한보고를했다。

특히 이날모임에서 民韓·국민당등 야당측은 계약된外米37萬톤의 추가도입을 중지할것과 보다 효과적인 景氣활성화대책을 촉구하고 金利引下가 大기업에는 특혜를주나 中小기업에는 별로 도움이안된다고지적、中小기업지원을 위한 재정금융대책을 세울것을 요청했다。

올들어 3黨대표들은 지난 1월11일、3黨3役들은 2월20일 각각 별도의 모임을 가진바 있다。이날모임에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政府側=劉彰順총리 金埈成부총리 盧信永외무 徐廷和내무 周永福국방 高建농수산 鄭宗澤정무제1장관 許和平청와대정무제1수석 金在益경제수석비서관 趙英吉총리비서실장

◇政黨側 ▲民正黨=李載灐대표위원 權正達사무총장 羅碩昊정책위의장 李鍾贊총무 ▲民韓黨=柳致松총재 柳漢烈사무총장 朴鍾基총무 ▲金鉉圭정책위의장 ▲국민당=金鍾哲총재 申哲均사무총장 趙一濟정책위의장 朴在旭부총무

「大學教育협의회의」어제發足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통된 학사 재정등 대학의 중요관심사를 협의할「대학교육협의회의」가 2일하오 1시30분 서울세종문화 회관에서 정식 발족됐다。

이날 전국의 97개총학장들이 참석한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준비위원회(회장 權彝赫서울大총장)가 만든 정관을 심의통과시킨후 초대회장(임기2년)에 朴吉眞 圓光大총장을 선임했다。

서울에 연락사무소를 두게될 이협의회의 사업은▲대학교육제도▲학생선발지도▲공납금확정▲대학간 교수교류、학점교환및 인정、학술 정보교환▲대학간 시설공동 활용등으로 이같은 사항을 자율적으로 협의、시행하거나 문교부에 건의토록돼 있다。

이 협의회는 특히 정부의 입시개혁조치이후 신입생 선발등에서 대학의자율성이 극소화돼감에따라 문교부와 대학간의 완충적인기구로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위해 만들어진것인데 이 협의회가 금년에 결정하게될 대학간의 전후기조정문제가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이날 회의는 임원으로 부회장에 張忠植檀國大총장、鄭樹鳳東亞大총장、朴在奎公州師大학장등 3명을 선출하고 감사로 濟州大、이사로는 서울大、高大、延世大총장등15명을 각각 선출했다。

또 사무총장으로는 張仁淑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선출됐다。

警察 4천여增員

閣議、釜山 金井·京畿 富川署신설

국무회의는 2일 釜山직할시에 金井경찰서를、京畿道에 富川경찰서를 각각신설토록하고 이에소요되는 배치인원과 通禁해제에따른 人力의 缺員을 메우기위해 경찰공무원 4천4백61명을 증원토록하는 경찰서직제중 개정령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은 현행 각경찰

社会漫評

이렇게 안건혀서야…

日棋界「통일 天下」다가서

趙治勳、7大타이틀중 3개획득

최고의賞金걸린 棋聖位 목표
難敵고바야시 누르면 꿈이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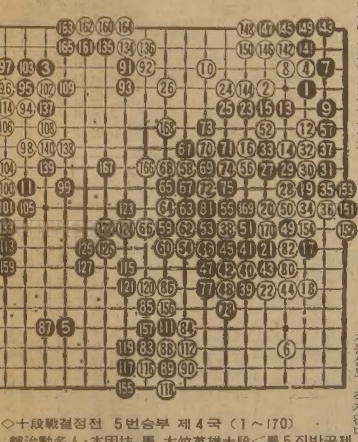
趙治勳名人·本因坊은 일본제4위의기전인 十段戰(産經新聞주최)타이틀마저 쟁취、일본 7대국 절반 가까이를 석권함으로써 일본기계 천하통일을향해 한걸음 더욱 다가섰다。그의 올해 최대목표는 상금액수가 가장 많은 棋聖位의 정복에 두고 있지만 이미 따놓은 타이틀도 지켜야되는 부담을 안고있다。

상금액수가 4백만엔인 鶴聖戰(日本航空 주최)까지 얼마전에 쟁취、4관왕이된 趙治勳名人의 앞으로 첫당면문제는 지난해 획득한 제37기 本因坊位의 방어。

현재 진행중인 本因坊位의 도전자결정리그에서 趙治勳名人에게 강한 고바야시(小林光一) 9단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한 6월께 고바야시와 숙명의대회전을 벌여야할판이다。고바야시9단은 8명이 벌이고 있는 本因坊戰 도전자결정리그전에서 내리 5승을 거두고 두판만을 남겨놓고있으며 그의 뒤를 따르고있는 橋本昌二9단이 4승2패로 나머지 2국을 모두 지고 橋本9단이 나머지 1국을 이겨도 동률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고바야시9단은 鶴聖戰도전자결정토너먼트에서 趙治勳名人을 꺾어 棋聖位도전의 길을 막는 자가 고금까지 趙 小林의전적은 이상하게도 小林이 우세를보이고있으며 이번 도전자리그에서의 전적이 보여주듯 고바야시는 상승무드를 타고있기 때문에 비장한 한판승부를겨뤄야 할것같다。

한편 제7기名人位의 도전자리그는 현재 절반정도가진행됐는데 지금까지의 전적으로는 林海峰9단이 3승으로 고바야시9단과 오오다께(大竹)10단의 2승1패보다 근소하게 앞서가고있다。따라서 名人戰에서도 고바야시9단이 도전자로 나설가능성도 적지않다。


◇十段戰결정전 5번승부 제4국(1~170)
白 趙治勳名人·本因坊 黑 大竹英雄十段<黑5집반공제 제한시간 각6시간>(76~70, 79~69, 158~131의곳)。

趙治勳 3冠王에

오오다께에 不計勝 十段位도

【東京1日=宋孝彬특파원】趙治勳 名人·本因坊은 1일 하꼬네에서 열린 제20기 十段戰(산께이신문주최)4국에서 오오다께(大竹英雄)十段을 불계로 물리치고 통산전적 3승1패로 十段타이틀을 차지했다。이로써 趙名人은 7대기전가운데서 名人·本因坊에 이어 상금이 네번째로많은 十段位까지 쟁취、3관왕의 영광을 안게되었으며 7대 타이틀이 아닌 鶴聖戰타이틀까지 계산할경우 4관왕으로서 일본에서 가장많은 타이틀을 지니고있는기사로 군림하게 됐다。

이날 白을쥔 趙名人은 하오7시15분 1백70수만에 오오다께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끝에 귀중한승리를 거뒀는데 남은시간은趙名人이5분、오오다께十段이 3시간15분이었다。

十段位의 상금은6백40만엔이다。

◇趙治勳기사

地平線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는 지구위 민물의 약5분의 1을 담고있는 바이칼호다。몽고와 소련접경에 있는 이호수의 깊이는 최대 1천7백42m。그러나 근래 이호수의 수위가 70~80cm 떨어졌다는 보고다。일대의 숲을 베어버리자 호수에 흘러드는 약3백개의 크고 작은 물줄기들이 말라버렸기 때문이다。이러다가 이지역이 그리스나 터키처럼 벌거숭이 산으로 변할 것이라는 경고다。▼바이칼호의 생명은 에피슈라라는 아주작은 새우비슷한 생물에 달려있다。에피슈라는 매우 적은 오염물질에도 죽기 쉬운만큼 송어같은 물고기의생존과 직결돼있다。그래서 호숫가에세운 세룰로제공장에서는 폐수를걸러서 흘려보내고있지만、그것도 위험하다고 소련의일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있다。호수를간수하기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60년대말에서 70년대초반까지 바이칼호의 오염문제는 세계적인 관심거리였다。그러나 지금 우리는 호수의 보존보다 호수를 만들어내는데 따른 변화가 문제되고있다。원래 가겨울철 메마른 계절과、여름의 장마철이 뚜렷한 우리는 댐을 만들어 물을 간수하지않고는 농사나 공업이 지탱하기 어렵다。정부가 엄청난 돈을들여 댐을 짓는 이유다。▼우리는 지난20년동안 12개의 댐을 짓거나 확장했다。앞으로 10년동안 1조원의 돈을 쏟아서 전국에 11개의 댐을 더 만들 계획이다。홍수를 막고、농토에 항상 대서 곡식을 증산하고、식수와 공업용수를 마련하고、게다가 1백만kw이상의 전기도 생산할수있다。그야말로「뽕밭이 바다로」되는건 아니지만 그만큼의 거대한 호수들이 생기는 것이다。▼흐르는 물을 막아 호수를 만들면 그에따른 변화가 자연계에 있다는게 문제되고 있다。예들어 八堂댐근처에서는 재작년겨울 영하32.6도까지내려가는 강추위를 경험했고、은어 뱀장어 숭어 강준치같은 물고기들이 상류쪽에서 모습을 감췄다。호수에는 오리떼들이 늘었지만 딴 텃새들은 줄고、하류의 농토도 메말라가고 있다한다。▼게다가 팔당댐에서는 민물담치라는 조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수도물 취수파이프와 발전소파이프가 막혀버릴 위험도 있다 한다。흐르는 물줄기를 막은 인간의 지혜가 미처 알지못했던 변화다。이런 변화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지않고는 전국에 널려 있는 호수를 간수하고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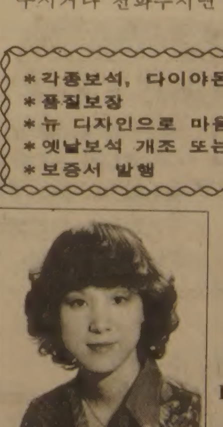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 주간여성 ♡
인기절찬 판매중!
절찬리에 판매중인 주간 여성지
새 가격 $2.50
4월4일자
주간女性

〈탤런트 金美淑〉
엽 당신의 男子사와 女판사 엽 全宇
「친구단」「애인이다」아리송한 소문의 眞相
文壇에 女軍출신 作家첫선
惡童役 단골 崔용팔군의 꿈
「黃眞伊 시집」佛語版 출간
惡女 列傳 魚玄機
현대 神秘「마인드·컨트롤」
金鍾水씨의 파란만장 歷程
강도 추행범 事例와 문젯점
RH 헌혈 봉사회 회원들의 활동과 異色 애환
밤舞臺 가수들의 천차만별 收入 總情報
판매처 : 각한국식품점

◆이대환 不動産

주택, 건물, 프라자, 아파트 등이나 사업체를 사시거나 파실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용과 친절로 봉사하는 이대환 부동산회사에 맡겨 주십시오.
*버라이어티 스토어
①주매상 $7,000이상 건물(1베드룸)포함 D.P. $120,000 아스킹 $210,000
②주매상 $10,000이상 아스킹 $130,000 리스 : 4+5 옵숀10년
③주매상 $8,000 아스킹 $109,000 리스 : 9+5옵숀
④주매상 $6,500 아스킹 $65,000 렌트 $500(Mon) 리스 : 11+5년 20마일, 시외
*도나스 샵
주매상 $9,200 렌트 $3,500 리스 : 3+5+5+5 아스킹 $310,000 다운페이 $150,000
*햄버거 샵 *드라이 크리닝 *커피 샵등 여러가지 비지네스가 있음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　B)535-1251　R)536-4250

Young-Sook's Jewellery
보석상 개업특별봉사
오는3월1일부터 다운타운에 보석상을 개업합니다. 교민 여러분께 최저 가격으로 특별봉사코자 하오니 꼭 한번 들려주시거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금·은 취급
*품질보장
*뉴 디자인으로 마음에 맞게 해드림.
*옛날보석 개조 또는 교환 매매.
*보증서 발행

민영숙
(B)368-7961
(R)690-5217
Fir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Booth No. 10—No. 11
215 Yonge St.
(영×킨)

南美 포클랜드群島에 戰雲

아르헨, 武力침공 임박

英과 領有權분쟁 高潮

航母 급파…特攻隊상륙

◇波軍用機납치한 아버지따라온 아이들 폴란드 軍비행기를 납치한 아버지들을 따라 체코상공을 거쳐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한 3명의 어린이들의 천진스런모습。【빈1日AP特約=聯合】

【유엔본부2日AFP=聯合】 아르헨티나는 2일새벽 (현지시간)을 기해 영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있는 남미 남단영국령 포클랜드군도에 대한무력침공을 시작할것이라고 아르헨티나의 노티시아통신이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군사당국과 긴밀한 접촉을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티시아통신은 아르헨티나 해군선박의 대부분이 푸에르토 벨그라노기지를 떠나 남대평양의 분쟁지역인 포클랜드 군도로 항진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한 공식 확인은 나오지 않았으나 레오폴도·갈티에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포클랜드분쟁을토의하기위한 긴급각의를 이날 상오7시 (한국시간 하오7시) 소집할 예정인것으로 발표되었다.

아르헨티나의 한 고위해군소식통은 10여척의 군함을 거느린 승무원 1천5백명의 상륙함「5월25일」호가 현재 포클랜드군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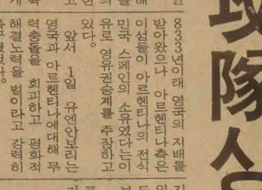
포클랜드군도는 남미대륙 남단 남대서양의 도서2백개로 구성된 군도로서 지난1833년이래 영국의 지배를 받아왔으나 아르헨티나측은 이섬들이 아르헨티나의 전신 민국 스페인의 소유였다는이유로 영유권승계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일 유엔안보리는 영국과 아르헨티나에대해 무력충돌을 회피하고 평화적 해결노력을 벌이라고 강력히 촉구했었다.

한편 영국정부는 그들 해군의 움직임에 대해 비밀을 지키고 있으나 최소한 1척의 핵추진항공모함이 포클랜드군도로 항진중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영국의 데일리·텔리그라프지는 항공모함 인빈시블호가 영국해군함대를 이끌고포클랜드군도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2日AFP=聯合】 아르헨티나의 특공대가 1일밤 포클랜드군도에상륙, 이섬의 수도 스테인리항에있는 비행장을 점령했다고 부에노스아이레스신문들이 2일 보도했다.



警察、英대사관포위

【부에노스아이레스2日AFP=聯合】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島침공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나도는가운데 1일밤 아르헨티나경찰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주재 영국대사관과 영국商社들을 포위하기위해 출동했다.

해설 石油가능성에 팽팽히 맞서

포클랜드군도를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를 영토분쟁은 1백50여년의 긴 싸움이다.

1833년 영국이 점령식민통치를 편이후 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줄곧 포클랜드가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해왔다.

양국이 아직 무력충돌을 벌인일은 없으나 지난달19일 12명의 아르헨티나 국수주의자가 이 섬에 상륙한것이 지금처럼 무력대결의 위험스런 사태를 초래했다.

포클랜드군도는 아르헨티나대륙붕의 연장으로 일찌기 18세기후반과 19세기초에 석유부존가능성이 확인돼 양국은 각자의 영유권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1977년 양국은 유엔의 중개로 영유권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했으나 실패, 긴장관계를 지속하다가 드디어 그것이 무력대결로 폭발할 지경이 됐다.

당시 협상에서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군도문제를 무한정 기다릴수없다는 입장을 천명, 무력사용의 가능성을 내비쳤었다.

美、對臺灣 무기판매 強行

北京소식통 中共의 外交격하警告 불구

【北京1日UPI AP=聯合】 6천만달러 상당의 미국의 對臺灣군사부품 판매계획이 중공의 반대때문에 취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北京의 한 정통한 서방외교관이 1일 말했다.

신원이 밝혀지기를 거부한 이 중견외교관은 또 중공이 대미관계를 격하하기로 결정할경우 중공의 원유개발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투자에 타격을 주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교관은 레이건 미행정부가 미국의 대대만무기판매에 대한『중공의 우려에 상당한 자제력과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으나『이같은 판매계획이 중단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미관리들은 30일 레이건 행정부가 대만의 F5E전투기를 위한 군사부품 판매를 진전시킬 준비를 하고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들은 대대만무기판매안이 4월중순까지 의회에 제출될것이라고 밝혔다.

미관리들의 이같은 발언으로 北京의 외교가에서는 중공이 대대만무기판매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대미관계를 격하할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됐다.

스페인 觀光名所로 등장한 「피카소 그림마을」 칼토하르

동네壁마다 傑作品모사

住民들 일요미사 거른채 그림그리기熱中

◇게르니카 모사벽화앞에선 칼토하르마을사람들。피카소마을이 유명해지자 이들은 마드리드에 가서 진짜 게르니카를 볼수있었다。

칼토하르는 스페인수도 마드리드에서 북서쪽으로 1백60km떨어진곳에있는 조그만 농촌.

주민수라야 모두 2백7명뿐이고 전화는 딱한대밖에없다. 젊은이들은 대부분 도시로 빠져나가고 노인과 어린이들이 양을 치며산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벽촌이 스페인의 명소로 등장하고있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의모든 벽에 스페인이 낳은 불후의 巨匠인 파블로·피카소의작품을 모사,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기때문이다.

마을 벽에그려진 피카소그림은 모두가 그림에 문외한인 이곳 사람들의 손에 의해 다시그려져, 더욱화제가되고 있다.

스페인내란의 참화를 그린 게르니카,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그림, 오선지와 악기와 악사가 뒤범벅이된「3人의 樂士」등 피카소의 걸작품들이 이마을에 재현되어있다. 진짜 그림과는다른 모사품들이긴 하지만….

칼토하르가 피카소마을로 탈바꿈하게 된것은 이마을공회당책임자 안구엘·누노씨의 착상에서 비롯되었다.

누노씨는 피카소탄생 1백주년을 기념해서 지난81년10월 게르니카가 스페인에되돌아온것을 계기로 흰회분색칠을한 마을의벽을 피카소그림으로 채우자고 제안했던 것.

동네꼬마들은 그림책에서 피카소그림을 오려왔고 어른들은 원화에 가까운 물감을 구해왔다.

밤에도 등불을 켜들고 분필로 밑그림을 그린다음 낮에 색칠을했다.

『조심,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음』이라는 푯말이 마을곳곳에 세워지고 동네사람들은 일요일미사도 거른채 작업에 열중했다. 신부를 빼놓곤 동네사람 모두가 이 작업에 매달렸다.

신부는 피카소 그림을 퇴폐적이라고 생각한데다 사람들이 벽화그리기에 열중, 미사에 빠지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계획에 반대했었다.

게르니카를 모사했던 비센타·카스테혼 노인(76)은 그림이 완성된뒤 TV를보고 뒤늦게 이그림이 값으로 따질수없는 명화라는걸 알곤 깜짝 놀랐다. 카스테혼 노인은『원화에 못지않게 이벽화를 정성껏 간직해야겠다』고 자랑스럽게 다짐했다.

칼토하르의 골목이 피카소벽화로 채워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관광객이 이마을에 몰려들고있다.

덕분에 몇몇 마을사람들은 진짜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감상할수있게 마드리드에 초대를받아 다녀왔고 바르셀로나에 있는 피카소박물관을 구경할수있었다. 【라이프誌】

◇피카소 벽화 모사에 열중하고있는 칼토하르마을의 소녀。

◆야루젤스키 곧 체코방문=보이체흐·야루젤스키 폴란드 군사평의회 의장은 구스타프·후사크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등 체코공산당 지도자들의 초청으로 4월초 체코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체코관영 체테카통신이 1일 보도했다. 【프라하1일AP=聯合】

外信로비

不法입국했다 追放

○…極右정치 색채때문에 미국방문이 금지됐던 엘살바도르의 로베르토·드뷔송민주공화동맹당 (ARENA)당수가 멀지않아 미국방문을 허용받게 될것이라고 미국무성고위관리가 밝혔다.

미국무성의 엔더스 中南美담당차관보는 지난1일 내셔널 퍼블릭라디오방송과 인터뷰를통해 이같이 밝혔다.

드뷔송은 1980년 미국입국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됐다. 그러나 그는 비자없이 미국에 건너갔다가 나중에 발각, 추방당했다.

드뷔송은 엘살바도르의 준군사조직인 비밀살인단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에스키벨

◇힌클리

디엔·비엔·푸英雄

○…디엔·비엔·푸의 전투로 유명한 베트남 前國防相 보·구엔·지압이 지난31일 폐막된 베트남공산당제5차 전당대회에서 정치국원의 자리를 물러났다. 2년전 國防相을 그만둔 그는 (副首相)職은 그대로 갖고 있으나 이것으로 黨、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물러난 셈이다. 아직 70세로 다른 지도자들에 비해 고령은 아니나 최근 병으로 자주 자리를 비웠으며 이번 은퇴도 실각이라기보다는 건강때문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엘右翼 드뷔송黨首 訪美길열려

越 前국방상 지압 政界서 은퇴

레이건狙擊 힌클리 배우 포스터만나

80年 노벨平和賞 에스키벨씨 엘事態 종식위한 斷食 돌입

세계인의良心촉구

○…80년도 노벨평화상수상자인 아르헨티나 反體制인사 아돌포·페레즈·에스키벨씨(50)가 엘살바도르폭력사태종식을 위해 지난1일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워싱턴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간 에스키벨씨는 자신은 물만으로 연명할것이며 이번단식의 목표는 전세계인의 양심과 성찰을 촉구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被擊사건 1년만에

○…레이건美 대통령 저격범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존·힌클리군은 사건발생후 3백65일만인 지난달30일 재판정에서 여배우 조디·포스터양과 만났다.

힌클리군은 포스터양의 관심을 끌기위해 대통령을 저격한 것으로 알려지고있으며 포스터양은 이날 증인으로 출두, 비공개로 증언이 진행됐다.

한편 레이건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1년전일인데 그보다 훨씬 오래된 일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메아리

바둑 第1人者

드디어 趙治勳名人·本因坊은 1일 日本 하꼬네에서 열린 제20기 十段戰에서 오오다께(大竹英雄)十段을 不計로 물리치고 3승1패로 그타이틀을 차지, 日本棋界의 3冠王이란 영예를 차지하였다. 日本棋界의 정상을 향해 끈기로써 精進해 온 趙十段. 그는 다께미야(武宮正樹)9단이 말한대로『한국 기사로서 日本기계의 제1인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큰 힘』이 되어왔다는 기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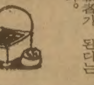
日本棋界에서 9단에 올라서면 이른바「入神의 경지」에 달한다고 한다. 이제 그는 이 入神의 경지를 넘어「十段位」를 차지한 셈이다. 오직「忍」과「執念」으로 뭉쳐진 그의 바둑 길의 결정이다.

올해들어서면서 그는 鶴聖戰타이틀(日本航空主催)도 땄었다. 61년8월1일 저녁때 여섯살의 나이로 日本 하네다空港에 내려 끼따니(木谷實)9단의 마중을 받으며 日本 棋家에서 刻苦修練을 쌓게된지 20년—그동안 日本 바둑계에 드문 記錄들도 많이 남겼다.

日本棋院 勝率1位、最多勝말고도 68년 2월9일 그는 12살로 처음 初段을 따서 日本棋碁史상 최연소 입단이란 기록을 세웠다.

그로부터는 승승장구, 같은 해 10월에는 2단, 이듬해 69년11월에는 3단으로 승단하였다. 이어 70년10월에 4단, 71년10월에 5단, 74년 12월에는 中國人 棋才라고 명성이 높던 林海峯과 대결, 열전 11시간반만에 4집반으로 개가를 올렸다.

그뒤 渡日13년만에 처음으로 日本棋界의 頂上에 도전, 사까다(坂田榮男)9단과 5번국을두었으나 3대2로 惜敗했었다. 日本에서는 그 挑戰者가 된다는 그것만도 하늘의 별따기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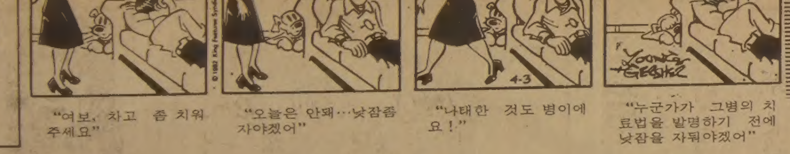


사까다9단과의 마지막대국에서 돌을 던지고 나왔을때 林海峯은『이긴 바둑인데 왜돌을놔』하며 심히 아까와했다. 頂上과의 대결에서 4戶半을 진 것이다. 그후 굽지않고 다시 日本프로10傑戰(75·5)에 도전하여 최연소자로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때 사까다9단은『멀지않아 日本棋界를 휩쓸겠다』고 趙기사의 앞날을 豫言하였다.

이제 그는 3冠王이 되었다. 어려운 일이 있을때마다 조국의 노래를 부른다는 한국의 천재기사인 그에 대해 日本에서도 남은「棋聖」「天元」「王座」「碁聖」등 타이틀을 다 차지하게되리라고 예견한다는 소식. 모국을 사랑하고 모국을빛낸 趙3冠王에게 부디 영광있기를….

블론디

本社特約·連載漫畵 딘·영作



"여보, 차고 좀 치워주세요" "오늘은 안돼…낮잠좀 자야겠어" "나태한 것도 병이에요!" "누군가가 그병의 치료법을 발명하기 전에 낮잠을 자둬야겠어"

海外토픽

脂肪質 많이먹으면 癌악화

지방질을 적게섭취하면 유방암의 확산과 악화를 방지하고 암사망률을 줄일수있다고 미국보건재단이 주최한 한 국제의료관계회의에서 과학자들이 주장했다.

영국의 웨스턴·온테리오대학의 케네드·K·캐럴 박사는 31일 동물실험결과 유방, 결장, 췌장전립선, 난소및 직장등 신체 각부분에서 발생하는 암사망률과 섭취한 지방질의 품질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뉴욕=UPI】

萬愚節에 허위報道

★싱가포르紙 市民들놀라

싱가포르 시민들은 시청과 대법원 청사앞에 점점 커가는 유기적인 고층건물이 들어선다는 신문보도에 크게 놀랐으나 알고보니 이 보도는 만우절에 독자들을 한번 놀려먹기위한 것이었다고.

이 만우절용 기사는 새로 건립될 54층짜리 대형건물은 특수 DNA를 농축처리한철제를 사용하여 해마다 4·5%정도씩 불어나 앞으로얼마나 확장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많은 독자들은 이날이 만우절인지 깜박잊고 이 기사에 어리둥절했다는것. 【싱가포르=AP】

플레이보이誌 불티

★매춘의 女巡警나체 실어

미국 남성잡지「플레이보이」5월호 제1판이 오하이오주의 스프링필드에서 전례 없는 판매붐을 일으키고 있다.

이유는 이잡지의 5월호에 3년전부터 스프링필드 경찰서의 여순경으로 근무하고있는 바바라·센츠양 (25)의 매혹적인 누드사진이 끼어있기 때문.

이사진의 공개로 센츠양은 해고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안고있으나 스프링필드 시민들은 잡지판매소앞에 장사진을 치고있으며 잡지를 구입한사람들은 그녀의 사진이나와있는 164페이지를펼쳐 8페이지에걸친 그녀의 노골적인 나체사진을보고 탄성을 발하고있다. 【스프링필드=UPI】

◇조깅으로가꾼 몸매 직업모델인 푸른눈의 줄리·부트(18)양이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하고 있다. 英國 웨스트·미들랜즈출신인 부트양은 집근처의 언덕을 매일조깅, 이같은 몸매를 유지하고있다고 설명. 【웨스트·미들랜즈(英) 1日AP特約=聯合】

外信안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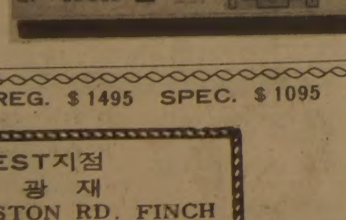
◆英 北아일랜드直接統治종식=영국내각은 1일 폭력으로 얼룩진 北아일랜드에서 제한된 자치와 선거에 의한 지방의회 구성을 부활시킴으로써 8년간의 北아일랜드 직접통치에 종지부를 찍는것을 골자로한 모종의 계획안을 승인했다. 【런던=UPI】

◆駐日美軍硫黃島서상륙훈련=제2차대전당시의 최대격전지였던 태평양의 유황도에서 주일미군이 전후최초로 대규모상륙훈련을 실시할 계획인것으로 2일 알려졌다. 훈련내용은 美해병대 8백명이 해안정박함정으로 부터 수륙양용 주정과 헬리콥터로 유황도에 상륙하는것으로 5월4일부터 3일간 실시된다. 【東京=聯合】

Y—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영숙
(B)368-7961 (R)690-5217

봄철스페샬대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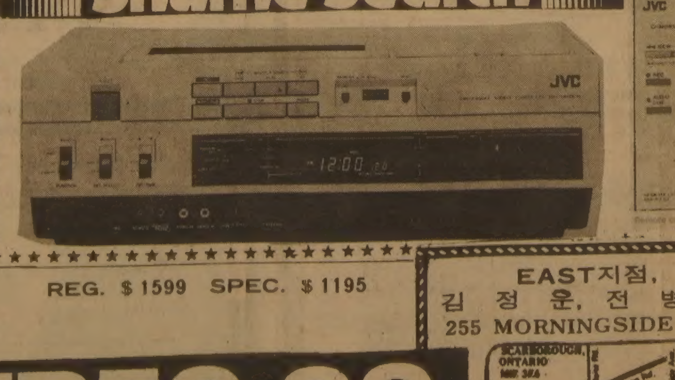
ZENITH



REG. $1495 SPEC. $1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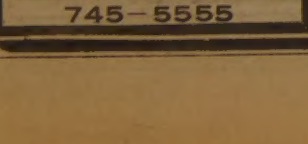
비데오는 역시 제니스
(BETA), J.V.C (VHS)
입니다
*14DAYS PROGRAM
(14일간 녹음가능)
*HEAD 4개
*REMOTE CONTROL 포함

JVC
Shuttle Search



REG. $1599 SPEC. $1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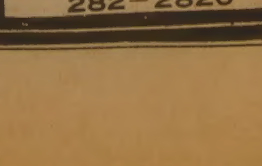
WEST지점
전광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아카데미 T.V. & STEREO CO.

EAST지점,
김정운, 전병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한국일보 (특집판)

駐韓外國人 오늘의實相

美·日 편중深化…誘致多邊化 아쉬워

精油서 食堂까지 駐韓외국인 商社

국내에와있는 외국기업은 크게두가지형태로 나누어진다. 국내기업과 합작형태로 진출한 投資企業과 支店형태로 진출한 商社가 그것.

정부통계에 따르면 62년이후 81년말까지 10년사이에 정부가 외국인투자를인가한 금액은 모두1천4백64건, 17억5천7백만달러.

이중 66·4%에 해당되는 9백73건이 70~74년중에 집중 인가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인가한 외국인투자 가운데 6백29건 3억5천6백60만달러에 상당하는투자분이 이미 국내에서 철수되었거나 국내법인으로 흡수돼 현재 남아있는 외국투자기업은 8백35개社 12억7천6백1만달러이다.

이중 실제로 국내에서기업활동을 하고있는 외국투자기업은 7백55개社로 전년도의 7백57개社보다 오히려 2개社가 줄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인책이 순조롭지 못한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8백35개 投資企業의73·2%인 6백12개기업이 일본과의 합작회사이다. 일본계합작기업의 투자규모는 6억4천5백8만달러로 전체 12억7천6백1만달러의 50·6%라는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일본다음으로 비중이 큰 投資先은 미국으로 1백35개社 3억1천4백68만달러이다. 미국계기업의 투자액은 전체의 24·7%로 美·日두나라의 투자규모가 75·3%를차지, 投資先의 지나친 편중현상을나타내고있다.

81년말현재 국내의 외국인 商社는 모두4백3개社. 80년말의 3백54개보다 49개社가 늘어났다.

80년의 3백54개 商社를 나라별로 살펴보면 미국1백12개사, 일본75개社, 홍콩52개社, 歐洲50개社, 아시아洲41개社, 영국24개社등의 분포를 보이고있다.

미국 일본계가 1백87개社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나 投資企業보다는 진출商社의 범위가많아 다양한셈.

외국企業의 업종별현황을보면 은행에서 食堂에이르기까지라는 말이 실감날정도로 업종이 다양하다.

投資企業은 전체8백35개社가운데 7백2개社가 제조분야에 진출하고있다.

반면 商社는 4백3개社가운데 서비스업종이 1백17개社로 가장많고 관매업55개社, 건설및용역분야 56개社, 금융보험38개社, 운수보관10개社, 제조업6개社, 기타 1백21개社의 분포.

제조분야에 진출한 7백2개投資企業에서 電氣및전자업종이 1백75개社로 가장많고 다음으로 기계업종의 1백21개社, 化工업종의 1백개社, 雜貨업종 1백1개社등이 비교적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규모에선 精油업계에 진출한 4개合作회사가 가장 높다.

최근들어 합작이 활발히 추진되고있는 분야가 기술과 자본이 달리는 중화학공업분야임을 알수있다. 전체 합작투자의 30%정도가 전기 전자및기계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건설을 맡았던 美웨스팅하우스는 서울支社를 현지법인으로 바꿔 본격적인 영업활동을개시했고 美 아막스社는 태백산맥의 몰리브덴광맥개발에 참여하기위해 現代와 合作진출을 꾀하고있다.

제조분야에서의 합작은 물론 첨단기술분야인 半導體를 비롯 합작투자의 종착역이라는 에너지 자원부문에까지 진출하고 있다.

投資企業과 商社의 영업실적을 살펴 보자. 지난해 외국기업의 법인세신고내용을보면 7백57개 投資企業의 외형은 7조3천7백18억원, 2백63개 외국인商社의 외형은 1조6천6백76억원으로 모두 9조3백94억원.

외형에서 경비를 제외한 실질소득은 投資企業이 2천7백66억원, 商社 9백22억원등 모두 3천6백88억원.

商社의 경우 매출액이익률은 5·53% 投資企業은 3·75%로 평균 4·0·8%.

이는 같은해 국내12월말 결산법인의 매출액 58조4천억원의 약15%, 순익 1조7천3백67억원의 21·2%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매출액 이익률에 있어서도 국내기업의 2·97%보다 1·11%포인트가 더 높은 것이다.

외국기업이낸 세금은 9백57억9천8백만원으로그해12월말 결산법인의 납부세액 2천4백92억원의 34·8%수준.

80년도 외국기업의 법인세신고내용을 통해 국내에서의 영업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해 投資企業 8백21개社의 총외형은 6조1천2백37억원이었다.

이익규모는 3천5백91억원으로 5·86%라는 높은 매출액이익률을 올렸다. 이중에서 7백2억원을 세금으로내고 3백80억원의 과실송금을 본국으로 보냈다.

投資企業의 매출액 6조1천2백37억원은 그해 국내법인의 총매출액 46조원의 약13%, 소득액 1조8천2백64억원의 23%에이르는 규모이다.

이 소득에대한 법인세부과액은 1천36억원이었으나 평균 32·1%의 세금감면혜택을 받아 실질납부세액은 7백2억원에 불과했다. 이를 업종별로보면 외형규모에서 6백93개의 제조업체가 5조8천6백15억원으로 전체의 95·7%를 차지했고 나머지가운데 금융업종이 1천1백32억원, 관광호텔등 음식숙박업이 7백54억원, 건설및용역업 2백53억원등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제조업체 가운데 4개정유회사의 매출액이 2조6백70억원이나 되었다.

국내기업가운데 금융업종이 가장 好況을 누리고 있는것은 합작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외형 1천1백32억원의 27%인 3백6억원이 실질소득으로 평균매출액 이익률 5·86%에비하더라도 5배이상높은수준이었다.

기타업종의 13·1%, 건설및 용역업종 11·9%등이 비교적 매출이익률이 높은편이었고 2·8%의 정유, 1·8%의 농수산업종이 저조했으며 광업은이익을 내지못했다.

755개社가 실제 企業 활동
投資업체 73%가 日 合作社
「노다지장사」 옛말
가장 재미보기는 「貿易알선」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일은 외국인투자기업들도 국내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외형은 늘어나지만 이익률은 떨어지고 있다는사실이다.

80년의 매출액이익률5·86%가 81년에 3·75%로 급격히 떨어진것이 이를말해준다.

물론 경영기법이나 내부통제가 비교적 잘돼있기때문에 국내기업들보다는 이익을 더내고 있지만 합작투자가 노다지로 인식되던 시대는 지나갔음을 예고하고있다.

한때 일본商社들은 세금까지 거부하면서 배짱좋게 장사를 한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의 종합商사들은 약3백억원의 세금을 아야소리도 못한채 추징당했다.

그만큼 세제가 엄격해졌고 계속되는 불황으로 장사가 어려워졌다. 투자유치가 잘안되고 있는것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될수 있다. 그러나 자본도입이 없이 지점을 차려놓고 장사를하는 商社의 경우 投資企業보다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 한국상품의 수출알선및 한국이 필요로 하는 상품의 수입을 알선하는것이 주업무인 상사들은 지난해 약20억달러의 수출알선실적을 올렸다.

일본상사들은 이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商才를 발휘하고 있는데 78년이후 우리나라 수출액의 10%정도를 수출알선해온 일본상사들은 한국상품을 일본으로 수출알선하기 보다 제3국 수출알선에 더욱 열을 올려 對日무역 역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78년 일본지역 수출알선비율이 58·1%였으나 지난해에는 40%수준으로 낮아졌고 앞으로도 이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상사들은 일본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있는 선진국에 자국상품을판기가 어렵게되자 대신 제3국제품의 수출을 알선, 커미션을 받고있다.

정부의 개방정책에 따라 이들에게도 수출입업 자격이 부여되므로 외국인商社들의 입김은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다.

【林鍾乾기자】

8개部處 許可 사실상 封鎖
外國人 土地매입、公館·合作法人은 例外

주한외국인이 한국에서 토지등 부동산을 매입한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그이유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땅이 넓은것도 아니고 남북으로 분단된데다 가용면적당 인구밀도가 세계1위일 정도로 팽창했기때문. 우리나라 사람끼리 모여 살땅도 모자라는판에 외국인에게 팔땅이 어디있겠느냐는 절박한 논리가 배후에 깔려 주한외국인의 국내토지매입을 철저하게 규제하고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주한외국인이 국내토지나 건물등 부동산을 매입, 소유권을 행사하려면 적지않은 제약을 받을수 밖에 없다.

외국인에 대한 국내토지 매입규제는 지난68년 제정공포된 「외국인토지법」에 따른것. 이법에 따르면 주한 외국인이 국내토지를매입하려면 땅의규모와 매입목적등을 적어 토지소재지의 시장·도지사에게 매입신청을 내야한다.

이같은 신청을받은 시·도에서는 군부대에조회, 군사관계에 저촉이 되지않음을 확인한후 내무부에 이첩한다. 내부부는 이를다시관계부처, 즉공장일경우 보사부, 상공부, 환경청등에 의견을 물어 결정하는데 관련부서가 줄잡아 8개부처나되며 단한군데라도 반대하면 그토지의 매입은 불가능해진다.

토지매입이 가능한경우는 주한외국공관, 대사관, 외국인 투자가50%이상인 합작투자법인일경우, 1가구1주택(2백평이하)등필요불가결한경우에 한해서만최소한의땅을허용하고있다. 그러나비공영기관, 즉영리를목적으로한 단체나 투자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일체 허가하지 않고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에와있는 외국은행, 무역회사등은 모두 땅이나 건물을 매입하지못한채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있다.

또 외국인이 골프장, 유기장등을 경영하기위한 부동산투자는 허용되지 않고있으며 다만 산업발전과외자유치를 위한 합작투자의 경우만 허용되고있다.

외국인 토지매입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안보와국방이 전제되는것 또한 명백하다.

미국에 건너간 한국사람들이 돈만 조금벌면 집부터 사들이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가 이처럼 외국인에 대해 「인색」(?)한것을 얼핏 이해하지 못하는 주한외국인도 많을 것이다.

【用】

분주한 職業人들

세련된 「돈놀이紳士」 外國銀行

12개國에서 支店40·사무소17개소
「싼돈」가져다 金利 年2~3倍 늘려
美 시티뱅크·BOA、日 東京·후지등이 先頭

돈을 벌기위해 한국에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많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외국인이라면 선교사나 외교관, 군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장사나 사업을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은 얼마되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은 반대다. 정치나 외교 군사또는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나와있는 외국인보다 돈버는것을 목적으로 이곳에 살고있는 외국인들이 훨씬 더많다. 투자를 해놓고있는 사람, 돈을 빌려주고있는 사람, 기술을 제공해주고 있는 사람, 물건을 사러오는사람, 팔러 오는 사람, 회사원, 은행원, 교사에 고문, 술집종업원까지 나와있다.

돈벌목적으로 나와 있는 외국인중에서 대표적으로 돈을 잘벌어가고 있는곳은 은행이다. 외국은행들에게는 한국이 문열려있는 황금시장이다. 장사시작한지 불과 2~3년만에 이익이 두배 세배로 늘고 영업규모는 10배 20배로 늘어나니 다른 어느곳에가서도 이만한 황금시장을 발견하기 어렵다. 어장에 고깃배 꾀듯이 많은 외국은행들이 우리나라에 몰려들어와있다.

81년말현재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은행은 모두 57개. 지점이 40개, 사무소가 17개로 12개 국가에서 진출해왔다.

국가별로 따져보면 支店의 경우 미국이 16개, 캐나다 2개, 영국 4개, 프랑스 5개, 독일 1개, 일본 6개, 싱가포르 2개, 네덜란드 1개, 룩셈부르크 1개, 홍콩 1개, 인도 1개등 11개국 40개지점이며 事務所의 경우는 미국이 5개, 캐나다 1개, 일본 8개, 사우디 1개, 홍콩 1개, 프랑스 1개등으로 6개국 17개 사무소이다.

좋은 시장에 이렇게 많은 은행들이 몰려 나와 있지만 손해를 내고 있는곳은 거의없다. 대부분이 두배 세배의 엄청난 이익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80년의 경우 (81년 영업실적은 아직 공표 안됨) 33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낸 당기순이익은 4백억원규모.

5개시중은행이 낸 이익 8백2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80년의 유례없는 불황속에서 직원 30~40명규모의 조그만 지점들이 평균12억원이 넘는 이익을 낸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익신장률을 따져보면 더 놀라운 숫자가 나온다. 매뉴팩처러하노버은행은 한해동안 19배, 알지멘은행은 12배나 이익이 신장됐으며 주요은행 20개지점의 평균적인이익신장률은 전년의 3배였다.

이익을 가장 많이 낸 시티은행의 경우 79년에 40억원을 올린데 이어 80년에는 63억원의 이익을냈고 체이스맨해턴은행은 41억원, 뱅크·오브·아메리카는 37억원, 모건개런티은행은 22억원, 東京은행은 19억원, 후지은행은 17억원의 이익을 각각 내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地方銀行들보다 더많은 이익을 올렸다.

갯수에 관계없이 외국은행국내지점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연도별로 영업규모, 신장 추이를보면 그 놀라운성장속도를 좀더 분명하게 확인할수 있다.

우선 자본금부터 따져보면 75년에 36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81년 10월말에는 4백75억원, 13·2배가 늘었다.

예금규모는 같은 기간중 2백98억원에서 1천8백39억원으로 6·2배증가.

대출금규모는 7백86억원에서 8천4백79억원으로 10·8배가 늘었다. 지급보증액은 3백8억원에서 1조2천1백억원으로 39·3배나 증가했다.

이익금은 29억원에서 5백59억원으로 19·3배나신장됐고 적립금도 14억원에서 1백63억원으로 11·6배가 늘었다.

75년말부터 81년10월까지면 6년도 채안되는 짧은 기간인데 이 기간중에 자본금이 13배, 예금규모가 6배, 대출금규모가 10배, 지급보증규모가39배, 이익규모는 19배, 적립금은 11배이상씩 각각 늘어난 것이다. 놀라운 신장세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외국은행들의 영업규모가 이처럼 급속한 신장세를 보임에따라 국내 전체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이들의 비중과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다.

81년3월말현재 우리나라 총예금에대한 외국은행국내지점의 점유비율은 1·4%. 77년말의 1·1%보다 0·3%포인트가 늘었다. 外貨예금의 경우는 3·7%나 된다.

우리나라 총대출에 대한 외국은행국내지점의 점유비율은 6·4%로 77년말의 4·4%에 비해 1%포인트나 증가했다.

외화대출의 경우는 외국은행들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다. 총 외화대출에 대한 외국은행국내지점의 점유비율은 46·8%. 외화대출의 거의 절반을 외국은행들이 담당하고있다.

외국은행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는 이유가 있다. 싼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비싼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알기쉬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기때문에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약게 장사를 한다고도 볼수있고 경제원칙에 투철한 것이라고 볼수도 있다.

외국은행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 많은 돈을벌어간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없지않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상호개방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은행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있기때문이다.

또 많은 외자를 들여와야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들의 역할을 얕잡아 보기도 어렵다. 억울하게생각된다면 우리도 많은 돈을 벌어오는 수 밖에 없고 외자도입을 좀더 많이 좀더 유리하게 해오도록 한다든지 이익에 알맞는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할 수 밖에 없다.

돈 많이 버는 외국은행, 그 은행을 경영하고 그곳에 근무하는 외국인 은행원들을 통해 부각되고 있는 外國人像은 냉혹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것이다. 바늘 하나 찌를 틈도 없이 빈틈없고 기계처럼 정확한 것이 그들이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人情같은 것은 없는 사람들이지만 일하는데 있어서는 배울점이 많은지도 모른다. 法을 어기거나 규정에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또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항상 웃어가면서, 소문도 요란하게 내지 않으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는 외국은행들의 솜씨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경제발전을 절실히 갈구하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본받아야할 가장 값비싼 기술인지도 모른다.

외국인 은행원들은 우리나라에 와있는 외국인들중에서 제일 점잖고 제일 돈잘버는 사람들이다. 돈버는 기술에 있어서도 세계의 첨단을 걷는 일류중의 일류이고 예의범절이나 품행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에 있는 신사중의 신사이다.

전쟁과 언론과 돈버는 기술을 이들처럼 절묘하게 조화시키고있는 사람들도 드물것이다. 【朴武기자】

◇매년 두배 세배씩 영업실적을 신장시켜나가고있는 외국은행들—. 이들은 신사적인 매너와 첨단적기술로 돈벌이의모범을 보여주고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77>

朴婉緒 作 金光培 畵

明暗 ⑪

수지네 식구들은 기욱을 기욱이네 식구들은 수지를 요모조모 실컷 뜯어보고나서 하나 둘 자리를 떴다. 마지막까지 남은 수철이 내외가 두사람을 시내 한복판까지태워다 주고나서 말했다.

『눈치없이 마냥 붙어다녀서 미안하구나. 이제 돌아갈테니 둘이서 충분히이야기를 나누길 바란다. 기욱군이 어르신네들 말씀도아직 못들어본 처지에서 내가 이런말 하는건 시기상조가 될진 모르지만 오늘의 두사람의 만남이 앞으로의 좋은 인연으로 이어졌으면 하는게 내 바람이다』

『당신도 참 급하시긴…』

염란이 수철의 옆구리를찌르며 눈을 흘겼다. 수철의 말은 누가 듣기에도 기욱에 대한 이쪽의 호감을 나타냈고, 맞선에서 먼저 호감을 표시하는 쪽이 그 일이 성사가 되건 안되건 손해보게 되있다는 고정관념이 염란으로하여금 질겁을 하게한 것 같았다.

『자아, 그럼 너무들 늦지않도록. 자네도 참, 데이트한여자가 과히 싫지않으면 집까지 바래다 주는 에티켓쯤은 알고 있겠지? 우리 집까지 오면 문밖에서 그냥 가지말고 들렀다 가게나. 차라도 한잔 하고 집구경도 하고가는것도 나쁘지않을테니까』

염란이 눈총을 주건말건수철은 기욱을 놓치기아까운 매부감으로 계속 호감을 표시했다.

겨우 단둘이되자 기욱이 기를 펴며 말했다.

『오빠가 참 좋은분 같군요』

『기욱씨 좋아해서요?』

『꼭 그렇게 꼬집어 말할건 또 뭡니까?』

『솔직이 말해서 난 오빠의 저 자세가 마음에 걸려요. 내가 형편없는 노처녀가 돼버린것 같기도 하고, 오빠한테 내가 큰 짐이란 생각도 들고 이래저래 비참해요』

그들은 번화가와 유리벽하나로 차단된 코피숍에 마주앉았다. 마치 우린 방금 맞선을봤다는걸 널리널리 여러사람에게 광고하려는듯이.

자욱한 매연에 휩싸이듯이 번화가가 저물기 시작했다. 먼저 하나 둘 켜지기 시작한 상가의 불빛이 아직은 호롱불처럼 미약했다. 하루중 가장 쓸쓸한 시간이었다.

문득 지금쯤 노모를 완행열차에, 아니지 준급행쯤은 태웠을테지! 준급행에 태우고나서 역광장으로나온 인재의 쓸쓸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지금 얼마나 외롭고쓸쓸할까? 마주앉았는 기욱보다 역광장에 혼자서있는 인재의 모습이 훨씬 더 생생한 현실감으로 다가왔다.

수지는 비로소 지금 자기가 왜 그렇게 비참하지 않수 있을 것 같았다.

번잡하면서도 황량한 서울역 광장에서 그 촌스러운 다홍 넥타이를 펄럭이며 이방인처럼 어리둥절한 얼굴로 도시의 어둠을 바라보고 서있을 인재때문이었다. 시골뜨기 인재가 서울서 겪은 작은 성공과, 겪은 수많은 고생과 당장 맛보고있을 하염없는 비애가 맞잡은 손의 온기처럼 그윽하게 마주 볼때의 숨결처럼 피부적인 감촉으로 가깝게 다가왔다.

비록 그가 주린배를 움켜쥐고 악착같이 거둔 성공이 실은 모래알처럼 흔하디흔하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앞으로도 그의 삶이 유별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두사람의 젊은 날을 기쁨으로 빛냈던 그 아름답던 열정까지를 범속한 배신에 맡겨선 안될것 같았다.

종교서관
535-1920
서적판매및 대여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금.토.일 권순근과 그일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광고 신청은
한국일보사
●일 반 광 고 : 최 성 조
●매매구인광고 : 박 경 옥
533-2361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캐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일보 특집판

駐韓外國人 오늘의 實相

法務部통계 작년末기준 4萬6千餘명 滯留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인총수는 법무부출입국관리국통계에 의하면 4만6천1백92명에이른다. 체류외국인이란 「60일이상」 체류할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들을 말하며 이들은 내국인의 주민등록증과같은 외국인 거류신고증을 소지하게된다. 「60일미만」 체류할수있는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서 체류중인 외국인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체류외국인수에서 제외된다. 이렇게볼때 국내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인을 국적별로보면 화교가 주종을 이룬 중국인이 제일많아 63·3%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지않기때문에 영주외국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않지만 이들 화교 (중국인) 들은 3년마다 체류기간연장신청을할뿐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들이나마찬가지다. 다음으로많은게 미국인 (20·3%)이며 일본인(5·8%), 독일인 (1·1%) 이 그뒤를 잇는다. 체류목적별로는 역시 중국인거주자 (화교)가 대부분인거주목적 (62·8%)이 제일 많고상용,종교활동,기술지도, 투자목적순. 지난 한햇동안 우리나라를 여행한 외국인총수는 입국자 93만9천9백55명 (선원15만6천9백40명제외)와 출국자 94만9백76명을 합해 모두 1백88만9백31명. 입국자와 출국자수가 비슷한것은 입국자가운데 거주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출국하기때문인데 이것은 입국목적별 외국인수에서 잘 드러난다. 【홍】

◇외국인 입국자 (81년 1년간, 선원156,940명제외)

▲국적별

계	일본	미국	중국	홍콩	영국	기타
939,955	506,878	130,206	128,440	18,944	14,876	140,611
100(%)	53.9	13.9	13.7	2.0	1.6	15.0

▲목적별

계	관광	상용	공무수행	기술지도	거주	기타
939,955	773,798	73,030	22,309	8,446	9,969	52,403
100(%)	82.3	7.8	2.4	0.9	1.1	5.6

외국인宣教師 총千3백명

25개國서 파견… 거의가 基督敎계통
이슬람敎 5명, 바하이敎서도 20여명

현재우리나라에 와있는 외국인선교사는 80년말현재 25개국에 걸쳐 1천3백명에 달한다. 문공부가 집계한 이숫자는 주로 천주교와 개신교에 국한된것이지만 사회사업가, 교사, 의사등 종교단체의 본사인원까지 계산하면 2천명이 넘을것으로 보인다.

선교사들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미국이 8백50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에이레 (53명) 캐나다 (33명) 프랑스 (27명) 멕시코 (26명) 의순이다.

이탈리아·西獨·호주·영국·스페인등 나라마다 20명안팎이 활동하고있고 오스트리아·뉴질랜드·네덜란드·스웨덴·남아연방·필리핀·벨기에·아르헨티나·스위스·말레이지아·자유중국·핀란드·스리랑카·파키스탄·태국·인도등은 한두명씩 와있다.

역시 주종을 이루는 미국선교사가운데도모르몬교로 통칭되는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교회가 4백명으로 단일교단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이고 다른교단들은 많은곳이 30~70명, 적게는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쳐있다.

에이레가 2위에 오른것은 지난 55년 천주교 골롬반會 외방전교부 소속 神父들이 서울城北區 小門洞6街에 한국지부를 설치한뒤부터이다. 활동반회에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인등도 섞여있기하나「본부가있는 에이레 사람들이 3분의2를 차지하고있다.

이들 선교단체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분야는 기독교의 복음전도를비롯, 학교와 병원 고아원과 양로원등 사회복지및 자선사업등 각방면에 걸쳐있다. 이같은 봉사활동에 헌신하고있는 외국인들 전부가 개신교의 목사나 천주교의 神父등 성직자는 아니다. 대부분이 선교계통 학교와 병원종사를통해 사회봉사를 하고있고, 관상 (觀想) 및 수도에 전념하는사람도있어 등록단체외의 종교활동에 종사하는수는 훨씬 많은 실정이다.

종교단체로 등록돼 있지는않으나 불교曹溪宗林 松廣寺에서 수행하고있는 외국스님들도 지난 60년대부터 꾸준히명맥을 잇고있고 현재도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등 5개국에서 10여명의 스님들이 참선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슬람교의 활동이 두드러져 사우디아라비아와 리비아정부가 5명의 선교사를파견했는데 이들은 파키스탄 태국 인도인들이다.

또 바하이교가 미국 이란인등 20명,통일교계통이 80명등록되지않은종교인들이있다. 바하이교는 따로성직자가없이 각자 직장에 근무하면서 측면선교를 하고있다.

통일교는 한국사람이 교주이지만,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벨기에 뉴질랜드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등 각국사람들이들어와 한복을입고 역선교를 벌이고있는게 특징이다.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깃점은 1784년으로 잡는다. 조선시대 실학파학자들이 선교사의 도움없이 중국에서 들어온 천주교서적을 통해서 신앙을 受洗한것인데 그뒤 최초로입국한 외국인선교사는 1795년의 北京교구소속 중국인신부 周文謨였다.

周신부는 전교활동에 들어간지 6년만에 새남터에서 목잘려 순교하고 그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속속 입국하여 모진 박해속에 12명이나 순교하는가운데 신심·자선·교육·사회사업등을 통해 복음전파에 힘썼다.

개신교는 1884년 미국장로교회의 의사 알렌이 선교사 임무를 띠고 서울에 들어온것을 스타트로 언더우드, 아펜젤러등이 상륙,공적인선교사업을 전개한이래 오늘의 화려한 1세기史를 이루게되었다. 【雨】

◇국내체류 외국인의 현황 (81년12월31일현재)

▲국적별

국적	人	%
중국	29,254	63·3
미국	9,392	20·3
일본	2,662	5·8
독일	508	1·1
기타	4,376	9·5
계	46,192	100

▲목적별

	人	%
거주	29,020	62·8
종교	1,200	2·6
상용	1,317	2·9
기술	908	2·0
투자	875	2·0
유학	466	1·0
연구	452	1·0
취재	22	0·1
기타	8,242	17·8
동반	3,690	8·0

한국속의 世界人

「서울租界」漢南洞의 外國人村

서울租界. 35개국 3천여명의 외국인들이 밀집해 살고있는 서울龍山區 漢南1、2洞일대의 별칭이다.

한강 물줄기를 바로받아래 갈고 멀리 永東벌판과 南山을 건너볼수있는 漢南1洞의 유엔빌리지는 서울租界의 발상지처럼 알려져있다.

철문사이로 들여다 보이는 2층집에서는 사람기척을 찾을수 없고 넓은 잔디뜰에서는 오직 귀염게생긴 누런색털의 스파니엘종개가 짧은꼬리를 흔들면서 뛰어 다닌다. 차고에 들어앉은 포드형 최신승용차는 시간으로보아 집에서 쓰는 주부용인듯 하다.

한때는 부와 가난의 接點지대처럼 여겨지던 이곳 이방인마을도 한국인의 생활주거환경의 향상으로 그저 조용하고 깨끗한 주택지대라는 인식정도로 평상화돼있다.

서울租界라는 별명답게 외국공관과 관저가 많다. 漢南1洞관내에만 우루과이, 스웨덴이 대사관과 관저를 함께쓰고 있고 인도, 터키, 스페인, 브라질은 관저를 갖고있다. 또 漢南2洞관내에는 말레이지아와 이란의 대사관·관저가있고 과테말라, 볼리비아, 코스타리카의 관저도있다.

漢南洞일대에만 4개 대사관과 10개대사관저가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漢南1洞에 전입신고된 외국인세대는 2인이상가구 65, 단독가구 2가구등 모두 67가구. 그러나 인근 외국인전문부동산소개인들은 실제 2백가구 6백여명이라고 말한다.

漢南1洞 金道輝사무장은 『동회와의 접촉은 한국인 가정부를 통한 적십자회비、 오물수거료납부뿐이고 이웃들과 왕래가없어 확실한 동태파악이 안된다』고 말했다.

부민부동산吳元根씨(63)가 말하는 외국인들의 주택임대형태는 작으나마 국내외경제와 정치움직임을 엿보게한다.

吳씨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크고 조용한 집을 요구하는것은 민간상사주재원일경우 자택에서 바이어 (거래선)를 초청,상담을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란다.

외국공관의 경우는 비교적 덜 하지만 민간상사인은 국내외 경기에 민감해·일반상사주재원들은 최근 국내외경기가 침체하자 이웃에 사는 외국인끼리 한집으로 모여 살면서 임대료·월세등을 줄이거나 임대료가 싼 작은 규모집으로 옮기는 외국인이 부쩍 늘었다는것. 2~3년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2가구가나가면 5가구정도가 새로 입주해오는 경향이었지만 최근에는 반대현상을보이고 있어 외국인전체수가 줄고있다.

그러나 국내외의 불경기와는 관계없다는듯 국제금융업 관계종사자나 원자력관계 외국인들은 여전히 비싼 집만 찾아 일반상인들과 대조를 보인다고한다.

이같이 외국인들의 숫자가 주는 것은 자기들끼리 밀집해 살지않아도 외국인상대범죄가 거의 없어 신변상 안전하다는 인식이일반화돼있고 아파트 단독주택등 기타지역의 주거환경이 무척 좋아져 난방비등이 적게드는 일반지역으로 많이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것. 이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옮겨가는 지역이 狎鷗亭洞 현대아파트단지와 方背洞 단독주택단지라는것이 소개업자들의 얘기이다.

吳씨는 프랑스인들이 최근1년~2년치의 임대료를 선불하는 종래 계약습관과는 달리 모조리 보증금에 월세형식으로 바꾸고 있다면서 이를 미테랑사회당의 집권과 연관시켜『민간상사인들이 뭔가 불안해하는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외국인들이 집을 고를때는 먼저 큰방구조가 부인이 쓰는 가구와 조화할수 있는가, 거실이 15평이상일것, 침실은 2층에 몰아있을것, 식당은 밝은곳에 위치할것등을 선택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는것.

이들 외국인들은 대부분 난방비등관리비때문에 건평65평이상을 기피하는 경향으로 한결같이 한국의 주택임대료가 비싸다고 불평한다.

S극장 사장집인 대지5백80평, 건평1백50평의저택이 최근 스페인대사관에 임대됐는데 월세 4천달러 24개월치 9만6천달러(한화 약6천7백20만원)를 선불하는 조건이었다고.

이같이 주택임대료가 비싸니까 미국인이나 군속은 1백50~2백달러의 주택수당으로 부족해 연탄집에서사는 경우도 많다는것.

南山外人아파트가 있는 漢南2洞관내에는 8백여세대 2천4백여명의 외국인이 모여산다.

주택공사가 관리하고있는 南山외인아파트에만 단독주택 52세대를 포함, 4백79세대가 모여산다.

이 아파트관리소의 李洛鉉씨 (28) 는『아마도 1개아파트안에 34개국사람 (최근이란인2가구퇴거) 이 모여사는 경우는 이곳이 세계에서 유일한 곳일지도모른다고 소개한다.

이 아파트의 입주우선권을 외교관·준외교관·주한군인·군속·외국상사원순으로 주기때문에 입주자의 50%정도가 외교관가족이라고. 외교관·군인들에게는 입주관리비를 25%까지 할인해주고 주거환경 관리등 입주자에대한 서비스체제가 잘돼있어 이곳에 입주하려면 최저 4개월이상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임대료는 남향위치의 침실3개의 아파트는 할인 5백77달러, 민간인 7백69달러, 난방비는 겨울철에 1백94달러를 받는다. 침실3개의 단독주택은 6백20~8백26달러수준.

주택공사측은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모여사는것을 감안, 입주자간의 친목도모를위해 매년 4월과10월 두차례 국제요리콘테스트를 벌인다. 각가정에서 자기나라를 대표하는 요리 5인분씩을 가져다 진열한뒤 서로 시식하면서 상대국의 문화를 이해한다는것으로외부에서도관심을갖는사람이많다.

◇34개국 4백79세대가 살고있는 住公南山外人아파트. 세계유일 (?) 의 最多 외국인 밀집아파트로서 연중 두번열리는 각국요리콘테스트는 입주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外人아파트엔 34國人 함께

賃貸料비싸 연탄때는집 살기도
國內景氣에민감 여럿이 한집서

외교관등 외국인을 주된 상대로 대성표구사(漢南2洞143)를 열고있는 李明震씨는 세로69、가로45㎝크기의 민화표구값이 시내 골동품가의 3분의1가격인 8천원내외로 싸기때문에 외교관들도 많이 찾아온다면서 휴가차 본국으로 떠나는 6、7월과 12월에 손님이 가장많다고 말했다.

프랑스인들이 대체로 부드럽고미국인들도까다롭지않은편이라는평을듣는다고.

李朝고가구전문상 상사를 경영하는 徐萬龍씨 (57) 부부는『개업한지 6년이 됐지만 외국인들이비록 모조품이기는하지만 우리 이조가구의 장식과 선을 보고 진심으로 감탄하는것을 보면 새삼 자랑스러워진다』면서『그럴수록 종업원들에게 정성을 다해 만들라』고 격려한다는데 외국인들은 보통 5만원내외의 장식가구를 주로 사간다고.

南山外人아파트인근의D중국음식점 지배인 彭彰麗씨 (48) 는『외국인들이가족과 함께 나와 외식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자기집에서 파티를 열거나 자체요리로 음식을 즐기는것같다』고 말하면서『한국인들은 대체로 너무 호화스럽게 차려먹는 경향』이라고말했다.

伊泰院洞의 터주대감으로 자부하면서 10여년전부터국전사진관을열고있는張모씨 (41) 는『카터때문에 양공주가 거의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미군철수로 숫자가 줄고 특히 지방에서 8군본부로 출장, 휴가차올라오는 장병이 줄어들어 상인들도 입씨기불경기를 체험했다고말한다.

이태원파출소 金正源소장은『미군을 상대로한 범죄나 미군자체의 범죄가부쩍줄어 1년전부터는 거리에 상주하던 미군헌병조차도 배치되지 않고있다』면서 서울유일의 기지촌주변 분위기를 설명했다.

【金蓬文기자】

국내企業속의 外國人

財閥기업 고문서 근로자까지 多様
現代그룹 최고…海外현장에만 1萬
報酬는직책·기능에따라 심한 격차

한국기업에 종사하는 외國人이 늘어나고있으며 역할도 다양해지고있다. 경제개발 초기만해도 기술합작이나 자본합작으로 한국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경제개발과 수출증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규모 수준으로 커짐에따라 외국인채용이 늘어나고있다.

외국인이 맡고있는 업무도 재벌그룹의 경영고문에서 근로자에 이르기까지다양하다.

재벌그룹의 경영고문은 美 前副統領인 스피로·애그뉴씨가 國際그룹의 경영자문을, 美 前국무성 국무차관보인 홀브루크씨가 現代그룹의 경영자문을 맡고있다.

외국인의 업무는 기술자문이 가장많고 업무관리, 판매, 회계자문, 공문서작성과 번역 어학지도 단순노동을 하는 근로자로 나뉘어지고있다.

외국인 채용이 많은 기업은 現代그룹이다.

現代그룹산하 각기업에서 常時勤務하는 외국인은 총 5백36명이고 해외건설현장에서 고용된 근로자는 1만여명에 달하고있다.

회사별로 보면 현대건설이 3백33명으로 가장많고 현대종합상사 1백20명 현대중공업 45명 인력개발원 12명 현대종합기술 4명 현대자동차와 대한알미늄이 각각 1명씩이고 기타 20명이다.

三星그룹은 31명으로 日本人17명 벨기에인9명 네덜란드인 3명 미국인2명이다.

회사별로보면 한국 전자통신 9명 삼성중공업 8 호텔신라 6명 삼성조선 5명 삼성석유화학 2명 제일합섬 1명으로되어있다.

三星그룹 산하회사별 경영고문은 10명안팎에 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大宇그룹은 大宇造船에서 기술고문으로 47명을, 大宇ITT에서 회계고문등 4명을 고용하고있다.

럭키그룹은 4명의 고문을 포함, 모두 24명의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다.

럭키가 日本人 2명、金星電線이 日本人 1명、半島商事가 필리핀인 1명등 4명의 기술및 회계고문을 두고있다.

회사별로는 금성사1명、럭키2명、럭키개발1명、럭키카본1명、금성전선、금성통신、금성계전 각각 2명씩 금성정밀 신영전기 각각 1명 금성반도체、남영유 6명 반도상사 1명씩이다.

鮮京그룹과 國際그룹도 3명내지 5명의 외국인을 고용하고있다. 現代등 일부대기업들은 기업의국제화를 촉진하고 우리나라에서 모자라는 기술인력을 외국의 값싼인력으로 보충하기위해 외국인고용을 점차 확대해나갈계획을 세우고있어 관심을모으고있다.

현대그룹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최근 태국,필리핀、인도등 3개국에서 기술및 관리직사원을 모집했는데 응모자가 무려 2천명에 달했다는것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수출상사들은 해외에서 세일즈활동과 정보수집을 위해 現地人을 채용하고있다.

또한 광고문안 작성을위해 그때그때 광고전문가에게 광고를 의뢰하고있다.

각기업들은 외국인들의 보수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꺼리고 있으나 직책과 기능에따라 격차가 심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趙源永기자】

海外걸작漫畵

『당신네들은 「매춘」이라하지만, 난 「자유업」이라해요』

"You guys call it 'Prostitution' -I call it 'Free Enterprise.'"

流星의 賦 <349>

李炳注作 李友範畵

孤獨한 英雄 ④

유극량은 홍계남이 한때 오위부 (五衛部) 의 사맹 (司猛) 으로 있었을 때, 두칸위인 사정 (司正) 이었다. 나이는 20여세의 차이가 있었지만 두사람은 각별한 친교를 맺고있었다. 그렇게 된데는 별른 이유가 있었다.

계남이 천첩의 소생이라고 하여 부내에서 따돌림을 받고 울울할 무렵이었다. 하루는 유극량이 계남을 서소문 자기집으로 불렀다.

『우리집에 국화주를 담아 놓은게 있으니 같이 가자.』

고 권한 것이다.

계남은 많은 사람이 초대된 것으로 알았는데 가보니 손님이란 자기 하나였다. 유극량은 계남에게 술을 권하며

『여러 사람 속에 끼어 지나기가 불편하지?』

하고 물은 다음 이야기 시작했다.

『산다는것은 참는다는 것이다. 참는다는것은 운명에 순종한다는 뜻이다. 왕후장상의 아들로 태어나는것도 운이고, 미천하게 태어나는것도 운이다. 운을 거역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일뿐 아니라 해서도 안되는 일이다. 첫째 부모를 욕되게하고, 둘째 자기자신을 더욱 서럽게 만든다. 내 흉중의처지를 잘안다. 아무쪼록 근신하고 본분을 지키고만 있으면 누구도 범접할수없는 기품을 잡을수 있을것이다』

계남은 이 말을 듣고 무척 메일 정도로 감격했는데 유극량이 뜻 밖인 고백을 했다.

『사실을 말하면 내 어머니는 정씨란 가문의 노비였었다네. 나는 그걸 모르고 자랐지. 그랬는데 내가 무과 (武科) 에 급제한 그날 모든것을 알게 되었다. 급제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 돌아와 어머니께 아뢰었더니, 어머니는 기뻐하기는커녕 통곡을 하시질 않는가.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란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었어. 참으로 슬피 우시는거라. 까닭을 물었더니…』

유극량의 어머니는 자기가 노비였었다는 것과 주인집 옥배 (玉盃) 를 깨어 벌을 받을 까봐 도망쳐 나와, 유극량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했다.

사천 (私賤) 의 아들임이 밝혀지면 모처럼의 등과 (登科) 도 삭과 (削科) 가 되었던 시절이다. 삭과란 자격을 취소한다는 뜻이다. 유극량의 어머니는 필시정씨가문이 그 사실을 살펴 관에 보고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슬피 울었던 것이다.

이어진 유극량의 말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그 정씨집으로 찾아가지 않았겠나.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뢰고 어머니의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 스스로 삭과를 신청하여 당신 집의 종노릇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지. 그랬더니 주인이 나의손을 덥석 잡으며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하고 어머니를 속량하는 문권 (文券) 을 주더먼. 아무 걱정말고 무인 (武人) 으로서 출세하라고 말일세. 나는 그 뜻을 고맙게 여겨 관도 (官途) 에 들어서긴 했네만 마음으론 그 집을 주가 (主家) 로 삼고 지금도 종으로서의 예의를 다하고 있는걸세』

홍계남은 불미한 출생까지 드러내어 자기를 위로하려는 유극량의 호의에 감격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오타와 지국장입니다

이 태 은 : ☎ 722-6133

기사·광고·구독등 신문사 관계사항 일체에 관해 도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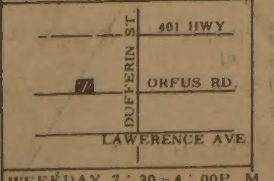
THESE TIMES NEEDS THE KOREA TIMES

LOEB CASH "N" CARRY

우리는 3개의 장소를 이용하여 친절하고 예의 바른 자세로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을 깨끗하고, 넓은 복도위에 가득채워 놓았읍니다. 물건의 구별을 쉽게하기 위해 케이스를 놓씩 쪼개 진열해 놓고 염가로 봉사코자 하오니 오셔서 구경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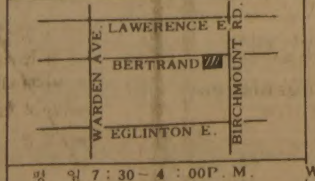
또한 우리는 매주마다 스페샬품목을 정해놓고 판매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요.

20 ORFUS RD. 782-8851
죠지 또는 그래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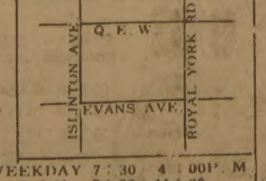
WEEKDAY 7:30-4:00P.M.
토요일 7:30-11:30

55 BERTRAND 752-7292
노움·존



평일 7:30-4:00P.M.
토요일 7:30-11:30A.M.

160 EVANS AV 255-6366
후랭크 또는 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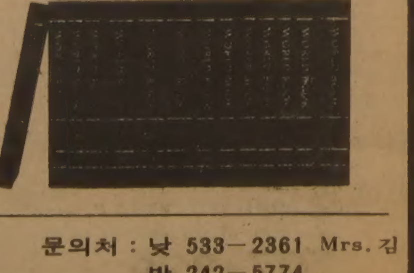


WEEKDAY 7:30-4:00P.M.
토요일 7:30-11:30

WORLD BOOK —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익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그림,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駐韓外國人 오늘의實相

한국일보 (특집판)

외국인학교 총51개校

華僑 46·美國系3·일본 2개校

모두初·中…高校는 本國에 華僑가 전체의 82%차지

주한외국인들이 한결같이 호소하고있는 가장 큰고민거리는 자녀교육。본국보다 나은 수입과생활여건에 만족해하고 있는외국인들도 이문제만 화제에 오르면 걱정이태산이다。

永東에 본국에선 생각할수도 없는 대지1백20평、건평70평짜리 호화저택에 살고있는 일본인 구로가와(黑川·41)씨의 경우도 그중의 하나다。

『큰일났어요。애들을 본국에 보내긴 보내야할텐데 그러자니 부인까지 딸려보내야 하겠고、마누라를보내면 내가 불편해 못견디겠고…』

中3짜리 장남과 올해 중학에 들어가는 2男의 아버지인 黑川씨의 걱정은 사뭇 심각하다。

3년전 첫부임할 때는 아이들이 어려서 큰걱정없이 데려왔으나 해가 지날수록 뭔가 결단을내려야할 순간이 바짝바짝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잘알지 않습니까。본국의 명문사립고를 다녀도 대학에 들어갈까 말까하는 판인데 여기 일본인학교에 다니고있으니 이대로두면 대학은영 못갑니다』

黑川씨는 아직 두자녀와 부인을 본국에 보내지 않고있으나 중학이상의 자녀를둔 대부분의주한일본인들은 이미 식구를 일본에 모두 보냈거나 애당초 독신으로와서 지내고있다。치열한 대학의 관문을 뚫기위해서는 최소한 중학과정부터 본국에서 다니지 않으면 안되게돼있는데다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서는 부인과도 생이별을 해야하는 것이다。

이때문에 나이 40줄을 넘어선 주한일본인들은 이곳에서 대개 독신으로 지내고있다。부인은 정기적으로 오가지만 다큰 자녀들은 방학때나 만난다。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런사정은 주한외국인전체가 마찬가지。일본보다 교육문제가 덜 심각한 미국이나 영어권국가 자녀들도 이곳외국인학교에서 중학과정까지 마치면 대개 본국이나유럽지역학교에 유학을 보낸다。

그러나 이정도라도 한국에서 중학、혹은 고등학교과정까지 교육을 받을수있게 된것은 불과10년전의 일。지난 72년에 서울에 첫일본인학교가 세워졌고 미국인학교는 그보다 한해뒤인 73년에 설치됐다。

81년 12월말현재 문교부에 등록된 외국인학교는 모두 51개교에 학생수는 7천3백10명。그러나 이중 華僑학교가 46개교이며 미국이나 일본인학교는 달랑5개교뿐이다。

이중 미국계학교는 서울국제학교(城東區華陽洞4의1) 서울외국인학교(西大門區 延禧洞)등 2개교와 大田의 코리아·크리스천·아카데미(大田市東區)등 3개교이며 일본인학교가 서울(江南區開浦洞산84)과 부산(南區 민락동173의8)에 각각 1개교씩있다。

이들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은 서로 달라 미국계학교는 초·중·고교과정을 모두 망라하고 있는데비해일본인학교는 중학과정까지밖에없다。

재학생 현황을보면 전체 7천3백10명중 華僑자녀들이 81·9%인 5천9백89명이고 미국인을 비롯한 영어권국가자녀들이 13·6%인 9백93명、일본인이 약4%인 2백81명의 순이다。

이들 외국인학교는 교과과정은 물론 포괄적인 교육방식까지 모두 본국정부에서 보내주는 상세한 지침과 교과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金時福기자】

◇外國人學校 團體 登錄現況

市道別	學校名	國籍	課程	學生數
서울	서울국제학교	美	초중고	378
	서울외국인학교	〃	〃	544
	한성화교소학교	中	유 초	1,009
	영등포화교소학교	〃	초	156
	한성화교중고등학교	〃	중 고	1,733
	한성화교롬화유치원	〃	유	
	서울일본인학교	日	유초중	281
계				4,101
부산	부산화교유치원	中	유	24
	부산화교소학	〃	초	249
	부산화교서면소학교	〃	초	80
	부산화교중고등학교	〃	중고	481
	부산일본인학교	日	초 중	37
계				871
대구	대구화교중학교	中	중 고	310
	〃 화교소학교	〃	초	135
계				445
인천	인천화교소학교	中	초	354
	인천화교중산중학교	〃	중 고	421
계				775
경기	수원화교중정소학교	中	초	76
	수원화교중정소학교 평택분교	〃	〃	22
	의정부화교소학교	〃	〃	25
	동두천화교소학교	〃	초	11
계				134
강원	춘천화교소학교	中	초	17
	원주화교 〃	〃	〃	30
	강릉화교 〃	〃	〃	27
	양구화교 〃	〃	〃	
계				74
충북	청주화교소학교	中	초	54
	충주화교 〃	〃	〃	19
	제천화교 〃	〃	〃	23
계				96
충남	코리아 크리스천아카데미	美	초 중	71
	대전화교소학교	中	초	54
	천안 〃	〃	〃	19
	강경 〃	〃	〃	31
	광천 〃	〃	〃	38
	서산 〃	〃	〃	5
	온양 〃	〃	〃	33
계				251
전북	정읍화교소학교	中	초	34
	군산 〃	〃	〃	80
	이리 〃	〃	〃	48
	김제 〃	〃	〃	6
	전주 〃	〃	〃	39
계				207
전남	광주화교소중학교	中	초 중	135
	순천화교소학교	〃	초	11
	여수화교 〃	〃	〃	15
	영산포 〃	〃	〃	24
계				185
경북	안동화교소학교	中	초	18
	경주화교 〃	〃	〃	16
	포항화교 〃	〃	〃	13
	영천화교 〃	〃	〃	12
계				59
경남	진해화교소학교	中	초	61
	울산화교 〃	〃	〃	7
	마산화교 〃	〃	〃	
계				68
제주	제주화교소학교	中	초	44
계				44

전통文化에 關心…寺刹자주찾아

한국베링거 副社長 오저홈氏의 「한국生活」

外食땐 갈비·불고기 즐겨

"通禁해제돼 아주좋아요…東大門시장은 매혹적인 곳"

아내와함께 民藝品 수집

◇말이 잘통하지 않는것 말고는 생활에 불편이 없고 이제는 韓國근무에 큰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오저홈韓國베링거부사장。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가롭다거나 시간적여유가 많은것만은 아니다。그들의 하루는 빈틈없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으며 매우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그런가운데 틈틈이 짬을 내어 취미활동을 하고 있으며 韓國文化에대한 관심도 높아 며 꽤이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있다。돈을 벌기위해 韓國에 와있는 외국인회사간부들도 그나름대로 韓國근무에대해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있다。白水의약(株)과 西獨베링거인겔하임이 50대50합작한 회사인 韓國베링거인겔하임부사장으로 재직중인 데이비드S·오저홈씨의 사무실을 찾아 그의 한국생활을 들어보았다。

『西獨계회사에 근무하고 있지만 저는 美國人입니다。보스턴대학을 나왔지요。서울漢南洞 아담한 외인주택에서 아내 제니트와 살고있읍니다。男妹를 두었는데 20살난아들과 15살인 딸은 그들어머니나라인 濠洲에서 大學과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저도 韓國베링거에 부임하기전에濠洲베링거에서 근무했읍니다』

오저홈씨는 가족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아침6시에 잠자리에서일어난다。코리아·타임스를 읽는것으로부터 그의 일과는 시작된다。

『이코노미스트』 비즈니스 리뷰등도 대충 훑어보지요。그런후 조깅 체조등 간단한 아침 운동을 합니다。아침을 먹고나면 8시쯤 되지요。9시정각에 회사에 도착합니다』

오저홈씨는 이때부터 회사업무에 들어간다。西獨本社에서 밤새 날아든 텔렉스를 읽고 결재서류를 정리한후 간부회의를 갖는다。중요문제에 관해서는 韓光鎬사장과 협의한다。틈나는대로 공장을 둘러보기도한다。점심은 주로 서울클럽에서 하고 1시부터 하오근무에 들어가나 업무는 오전업무와 별다를게없다。6시30분이면 퇴근길에 오른다。

퇴근후에는 초대한 손님들과 저녁시간을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오저홈씨는말한다。『외국손님을 접대하기위해 밖에서 식사를 하거나 손님을 초대하기도합니다。그러나 주로 아내와 식사를 한후 TV를 보기도합니다。AFKN을 시청하나 권투 야구등 스포츠프로는 韓國방송을 보기도 하지요。통상밤10시30분이면 잠자리에 듭니다。최근에 통행금지가해제되어 아주 좋은것 같습니다』

"불편한건 言語뿐 운동 中繼 잘봐요"

부임한지 햇수로 3년이나 됐으나 韓國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갈비와불고기를 즐겨먹는다는 오저홈씨는 일요일이나 공휴일등여가가 생겼을때는 韓國文化를 폭넓게알고자하는데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한다。

『연휴때는 관광을 합니다。경주 제주도 울릉도등 유명관광지는 모두 가봤읍니다。특히 사찰을 자주찾는 편입니다。아내와 東大門 南大門시장에 가 쇼핑을 하기도하는데 韓國민예품을 사지요。별의별물건이 다 있어 매혹적인 시장이더군요』

그의 아내 제니트여사도 하는 일 없이 집안에서소일하지는않는다。駐韓외국부인회에 참여하고 外換銀行직원들에게 英語를 가르치고있어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그에게 한국생활의 불편은 이제 가셨다고 한다。

『부임초에는 모든 것이 낯설어 이질감을 느꼈어요。언어소통이 원활치 못한것을 제외하면 이제 생활에 불편은 없읍니다。날이갈수록 한국근무에 보람을 느끼고있어요。西獨본사는 韓國베링거에 큰비중을 두고있읍니다。韓國베링거가 빠른 속도로성장하고 있을 뿐아니라 韓國經濟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할수 있는 나라로 보고있기때문이죠。79년1월 濠洲베링거에서 韓國베링거로 올때에 저도 승진을 해서 부임했읍니다。외국인에게 韓國근무는 그의 경력에보탬이 될것입니다』

회사가 무럭무럭 커나올때마다 가슴뿌듯함을 느낀다는 오저홈씨는 앞으로2~3년韓國근무를 더하겠다면서 말을 끝맺고 인터뷰중에 밀린결재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다。【昊】

華僑

「淸料理」로 致富…차츰斜陽化

1882년 淸兵업고 仁川에 첫뿌리

한때 30만명서 지금은 2만7천명

華僑하면 외국인이라기보다는 외모나 생활습관이 조금다른 他關사람정도로 생각된다。서양사람과는달리 외모도 비슷하거니와 오랫동안 친근한 이웃으로 지내왔기때문이다。「비단장사 王서방」이나 「장궤」로 연상되는 華僑들은 우리사회의 근대화과정에서 異邦人으로서보다 생활속의 이웃으로 자리잡아온것이다。

中國人이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들여 놓기는 기원전 1122년 古朝鮮시대의 箕子로 기록되고있다。그러나 오늘날 華僑들의 선발주자가 들어오기 시작한것은 淸나라 세력이 李氏朝鮮에 득세하기 시작한 壬午軍亂(1882년)직후。정권을 되찾기위한 閔妃의 요청으로 원정온 吳長慶제독휘하4천명 군졸속에 3~4명의 華商이 끼어들어왔다는것이다。

이어 韓淸商民水陸通商章程(1882년)이 체결되자 국경통행도 자유로와지고 華僑들의 대거진출이 가능하게된것이다。淸兵을 업고 仁川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기시작한 華商들은 서울로 뻗치게됐고 점차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다。舊韓末까지 계속늘어나는 추세를보이던 화교수는 韓日合倂후에도 계속 증가、1930년께에는 30만을 헤아리게 됐다。그러나 1931년 萬寶山사건으로 화교들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박해가 심해지자 본국으로 돌아가는등 화교가 대폭줄어 太平洋전쟁이 일어나던 41년에는 15만명、해방당시에는 남북한을합쳐 7만명가량이 살고있었다。

현재 南韓의 화교인구는 2만7천여명으로 이가운데 9천여명이 서울에 몰려있다。서울 화교는 5년전만해도 1만8천여명을 헤아리던것이 반으로 줄었다。

바로 1세기에이르는 旅韓華僑史의 영고성쇠를 말해주는것이다。韓日合倂후인20년대말까지만해도 대단한 경제력을 가졌고 해방직후엔 홍콩 마카오무역으로호황을 구가하던 화교들이 斜陽化되고 있는것이다。심지어는 생활의 主方便으로 철옹성을 쌓았던 중화요리업계에서까지 화교들은 뒷전으로 물러났으며 어디서나 독특한 풍습과 맛을 풍기는 차이나타운들도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전성기인 30년대 화교들의 재력은 대단했었다。韓회사同順泰의 주인 譚傑生은 高宗이 내탕금이 부족할때 돈을꾸어줄 정도였고 해방직후 홍콩 마카오무역이 한창일때 華商13명의무역거래액이 국내수출입의 16~21%를 차지했었다。

소위 화교들의95%가 매달려있는 「중국집」만 해도 50~60년대엔 화교들이 독점하면서 전국에 3천여개나 있었던것이 요즘엔 1천2백개 정도로 줄었다。중국집 경영자본포만봐도 현재 중국인이 경영하는것은 전체 중국집의 25%에 불과하다。서울의경우 2천여중국집가운데화교가직접경영하는것은4백개미만이다。

뿐만아니라 규모도 영세화됐다。과거 고급요리의 대명사였던 「淸料理」의 진미는 화교경영의 雅叙園이나 泰和館등에서 찾았지만 이젠 웬만한 고급중화요리점은 모두 한국인이 경영하고있다。

실제로 화교경영의 중화요리집으로 서울에서 3백명이상 수용할수 있는곳은 汝矣島의 新東洋 한곳뿐이다。자본이 영세하기 때문에 생활환경이나 기호의변천에 맞게 개선하지못하고 있는것이다。그러다보니과거엔 중국집에서 팔수육잡채로 대접하면 잘모셨다는 소리를 들었으나 이젠 이렇게하면 하류대접으로 취급받는다。뿐만아니라정부의 가격정책때문에도 못할 애로를 안고있다。10년전만해도 곰탕값과 자장면값이 같았으나 현재는곰탕이 1천2백원인데 비해 자장면은 5백원으로 묶여있다。

그뿐인가。한집에서10년 20년씩 장사하다보니 영업수익은 늘지않는데 세금課標는 매년 올라 한국인이 경영하는 중국집보다 항상 더많은 세금을 부담하고있는 현편이다。

물론 이같은 외형적여건 때문에만 화교사회가 시들고 있는것은 아니다。보수적인 사업관념、낙후된 경영방식、상업편중의 경제구조및 영세한 자금등 현대경제사회에서 뒤떨어질수있는 취약요건은 많다。【崔相泰기자】

나의생각

부모님 臨終맞아 깨닫게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高琳順<수필가>

기도는 신앙인의 영원한 호흡이다。호흡이 끊어지면 인간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끊긴 신앙 생활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지금까지 내 크고 작은 기도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들어 주셨고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는 생활을 나는 하고있다。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올려도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었다。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는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는데 그것은 친정 부모님에 대한 기도를 드릴 때 부딪치는 문제였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만큼 왜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일까。아홉 남매를 키우시느라 그토록 고생만 하셨는데 늘 어두운 그늘이 가시지 않는 소외된 노후생활이 나는 가슴 아파 부모님을 괴롭히는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제거해 달라고 뜨거운 눈물로 기도를 드렸으나 내 믿음이 약해서인지 언제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부모님은 갈수록 악운이 겹쳐 토지를 사기 당해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었고 설상가상 기둥처럼 의지했던 의사 아들이 병사하자 마음의 고통을 이길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질때도 있었다。

이 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부모님의 마음을 열고 믿음을 부여하시게 되었다。오직 하나님만이 부모님을 사랑하신 것이다。불과 4년에 지나지 않는 짧은동안 부모님의 신앙의 성장은 놀라와 작년에 세례까지 받으시고 두 분이 함께 손 잡고 천당에 들어가서 죽은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믿음의 길 뿐이라며 열심히 기도하시는 독실한 신앙생활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게 되었다。

참된 믿음이란 결코 지식이나 긴 세월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다고 볼수있다。

한달전 뇌졸증으로 두분다 쓰러져 함께 투병하다가 아버님이 먼저 운명하시고 그 이틀날 어머님마저 조용히 천사처럼 천당으로 동행하신것이다。어머님 임종을 지켜보던 불효자식들의 자지러지는 몸부림이 졸지에 천애고아가 되어버린 허탈감과함께 피투성이가되도록 바위돌에 부서지고 싶은 죄책감으로 변하는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것이다。

『회개하라、그러면 구원을얻으리라』생명을 주신자도 취하신자도 하나님이시니 이 세상의 고통과 멍에를 벗게하고 부모님의 생명을함께 거두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손들에게 놀라운 믿음을 분출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것이다。

金相賢 6월 美서挑戰

맘비와 2萬弗개런티로

프로복싱 前WBC슈퍼라이트급 챔피언 金相賢은 [illegible] 오는6월11일 라스베이가스에서 타이틀전을 갖는다고 [illegible] 2일 밝혔다。

맘비 [illegible] 전은 [illegible] 모으고 있는 [illegible] 리·쿠니의 WBC [illegible] 이틀전에 앞서 열린다고 [illegible] 컴프로모터가 밝혔다는것。金相賢의 개런티는 2만달러(약1천4백만원)로 알려졌다。

金은 지난80년2월 맘비에게 KO로 패했었다。

1일 香港에기착 소프트볼 問題로

【홍콩1日UPI=聯合】환·안토니오·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장이 오는7일의 臺北 세계여자소프트볼선수권대회를 둘러싼 中共과 臺灣간의 미묘한 소프트볼외교와 때맞춰 3일간 일정으로 홍콩을 공식방문하기위해 1일 홍콩에 도착했다。

홍콩과 臺灣소식통들은 사마란치위원장의 홍콩방문을 계기로 3、4양일간 홍콩에서 臺灣·中共국제소프트볼연맹(ISF)체육관계자들간에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소식통들은 「후안 사마란치위원장이 北京과 臺北의 소프트볼 인사들을 만날것이라고 밝혔는데 만약 이같은 회담이 열리게되면 中共정권수립후 臺灣과 中共간의 최초의 공식접촉이 되는셈이다。

앞서 지난31일 사마란치위원장은 北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ISF가 IOC의 제반규정과 규칙및 헌장을준수해야한다고 말한바 있다。

亞洲J테니스大會

盧甲澤 4강에 남녀 複式서도

한국은 대만서 열리고있는 82년도 아시아 주니어테니스선수권에서 남자단식의 盧甲澤을비롯 남녀복식조가 각각 준결승에 진출했다고 선수단이 협회에 알려왔다。

盧甲澤은 臺灣 양명산컨트리클럽코트에서 벌어진 준결승서 印尼의 스헤진노를 2-0으로 물리치고 4강에올랐다。

또 동복식서도 盧는 金載[illegible]과함께 대만組를 2-1로 꺾고 여자복식의 李英春·朴美淑조와함께 준결승에 진출했다。

사마란치 IOC委員長 7일 來韓 4일간 체류

◇사마란치委員長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환·안토니오·사마란치위원장(62·스페인)이 기요가와·마사지(淸川正二)부위원장、장녀 바리방·테레사양(25)과함께 7일 하오5시30분 CPA편으로 내한한다。

아시아 7개국을순방하고있는 사마란치 위원장은 4일간 한국에 머무는동안 청와대로 全斗煥 대통령을예방하고、서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SLOOC)를방문、88년서울올림픽 [illegible] 한들을협의한다。

또한 사마란치 위원장은 [illegible] 국무총리、[illegible] 장관、金澤壽IOC위원、朴英秀서울시장、[illegible] 문제에 대해 의견을나누고 [illegible] 실 서울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시설현황을 둘러보게 된다。

북한뉴스

"金正日은 白頭山서 出生" 로동신문、神話造作劇

【東京1日=宋孝彬특파원】 아사히(朝日)신문은 1일자 조간외신면에 「前面에 나선 金正日」이란 표제로 북한에서 활발히 추진되고있는 金日成왕조 옹립현상을 특집으로 보도했다。

金日成의 장남인 金正日(40)은 작년10월 노동당 6차대회에서 黨서기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뽑혀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굳힌데 이어 이번에는 국가지도기관의 요직에 취임、정치 외교에 나설것으로 보인다고 다음과 같이 그 입증자료를 제시했다。

金正日의 40세 생일을 하루앞둔 2월15일자 노동신문은 1면 오른쪽 반칸도를 할애하여 金正日의 영웅칭호수여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으며 본문에 나온 金正日의 이름을 돋보이도록 고딕체로 썼다。본문의 이름을 고딕체로 쓴경우는 金日成이외에는 하지않았던 것으로 金正日에 대해서까지 고딕체로 쓴 것은 金日成과 같은 예우를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월17일자 노동신문은 金正日이 완공단계에 들어간 모란봉경기장 화장공사장 시찰기사를실었는데 거기에 나온 金正日의 이름을 보통활자의 2배가 되는 큰활자로 썼다。

2월28일 실시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7차 대의원선거후보 6백15명의 이름을 공표했을때도 2월20일자 노동신문에 金正日의 이름을 부주석인 金一、康良煜 보다 큰 활자인 고딕체로 썼다。

그뿐만 아니라 金의 영웅칭호수여기사에는 金正日이 『항일투쟁의 피가 서린 백두산의 비밀아지트에서탄생、혁명의 준엄한 시련을 체험하며 성장했다』고 말하여 벌써부터 金의 신화를 조작하고있다。

金日成의 권력세습에 대해 중공과 소련등은 논평을 가하지 않음으로써 비판과 불쾌감을 표했으나 점차 인정하는 경향으로 나오고있다。

광고문의
(416) 533-2361

제7회 캐나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미녀들의 출전 환영!

캐나다 전역의 교포미녀들의 다수 출전을 바랍니다.
입상미녀들은 토론토에서 실시되는북한문화 축제 캐라반 행사에 참가하며.
최고미녀 「진」은 모국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선」은 캐라반 미녀선발대회에 출전할 영광이 주어집니다.

1982년도 MISS KOREA OF CANADA
참가신청서

1. 성 명:
2. 주 소:
3. 전 화:
4. 생년월일:
5. 특 기:
6. 학 력(최종학교명):
7. 직 업:
8. 신 장: 인치
체 중: LBS.
바스트: 인치
웨이스트: 인치
히 프: 인치

때 : 1982년4월24일(토) 하오6시
곳 : 다운타운 HOLIDAY INN (토론토시청뒤)

● 응모자격 :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혼 한국계 여성
● 연 령 : 만17세부터 만25세까지
● 신청서류 : (1)신청서 1매 (2)사진 2매(명함판)
● 제 출 처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 신청마감 : 1982년 4월10일 하오 5시
● 의 상 : 수영복·이브닝드레스·한 복
● 문 의 처 : 한국일보사 (416) 533-2361~4
● 기 타 : (1)미스코리아 "진"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미스코리아 전국결선대회에 출전하여야 함. (2)입상자 전원은 82년도 캐라반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 입 장 료 : $30.00(디너·쇼, 댄스포함)

주 최 : 토론토 지구 한인회
후 원 : 한국일보사

상품기증

○. 로렉스 여자용손목시계(온하보석상)
○. 진주목걸이,진주반지, 진주귀걸이(14K Gold) 고급화장품 3셑트(미도파)
○. 고급여자용 썬글라스2개(룰란서제) (불루아란경점)
○. 녹용($150상당), (동양한약상사)
○. 금일봉 $150 (제일여행사)
○. 홈·셑트($100 상당)(불루아 하드웨어)
○. Webster 사전 (3권) (신용목)
○. 고급벽시계(김종조 종합보험)
○. 금일봉 ($100) (황재필).
○. 참가자 전원에게 꽃다발(코리아타운 번영회)
○. 20″ Panasonic Color TV 1대 (아카데미 TV및 파나소닉사제공)
○. 이태리안 3 Colour 금목걸이 (Young-Sook's Jewellery)

※상품기증 하실분은 한인회로 연락바람.
☎ : 755-9288

全國 데이터通信網 을 컴퓨터 착수

한국의 컴퓨터活用 어디까지 왔나

67년첫導入 81년末 633臺

企業·금융·病院등은普遍化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이 우리나라에도 상륙, 일부 학교에서 이용하고있다. 사진은 무학여고에 설치된 교육용 컴퓨터의 단말장치. 【金龍逸기자찍음】

郵政局 최후의 消印 찍힌 1884년 우표 첫선

「文位郵票十文」…太極도안의 青色

在日교포가 작년 墺서구입…1천5백만원 호가

「蒐郵會」기념전 계기 母國서 展示

◇갑신정변이 일어난날인 1884년 10월17일의 소인이 찍힌 「문위우표10문」。郵政局 최후 사용필이 찍힌것은 이우표가 처음으로 1천5백만원에 호가되고있다。

甲申年末 갑신정변이 일어난 날인 1884년10월17일(음력)의 郵政局 최후소인(消印)이 찍힌 「문위우표십문」(文位郵票十文)이 우리나라에 첫선을 보여 우표수집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체신부가 오는 84년 한국우표발행1백주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우취(郵趣)문화를 육성키위해 마련한 신축 明洞중앙우체국3층에 자리잡은 우표상설전시장 개관기념우표전 「수우회전」(SUWPEX82)(4월2일~6일)에 나온 이 우표는 바다 건너 日本에서 온것. 가로2·5㎝ 세로2·9㎝ 크기의 태극모양이 도안된 이 청색우표는 태극둘레에 「大朝鮮國郵鈔」란글자가 한글·한문으로 뚜렷하게 써있고 최후사용일인 甲申년10월17일이 우표중앙에 찍혀있다. 우리나라돈으로 자그마치 1천5백만원에 호가되고있는 희귀우표이다. 소장자는 在日동포 董孝大씨는 작년5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구입했다는것.

董씨는 서울한복관에 우표상설전시장이 생겨나 그 개관기념우표전에서 모국인에게 그 첫선을 보여 기쁘다는 표정. 지금까지 서울에서 우표전시는 산발적으로 열렸었으나 우표를 하나의 예술품으로 주제 토픽 도안별로 구분해서 상설전시장을 마련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崔成予기자】

文富軾·金恩淑 그들은 누군가

幻想의理念, 꿈꾼 애인關係

특수한環境으로 쉽게물들어

釜馬사태介入·「샛별회」조직

주로 女大生포섭 불온서적 탐독

부산美문화원 방화사건을 주모한 文富軾과 金恩淑은 어떤「성격」의 사람들일까.

【金董기자】

美国 이런일·저런일

朴대통령·존슨의 血盟과 異夢

1·21事態땐 한국측強硬策 묵살

푸에블로號 事件나자 즉각 對應

베트남 派兵하고도 서먹한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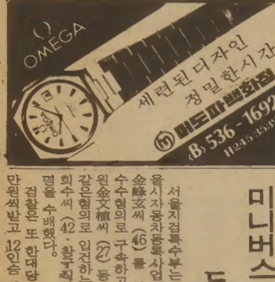
◇66년11월 訪韓한 존슨대통령。華城 존슨공원에서 만난 한동갑村老와 헬기를 함께 타고가며 무언지 설명하고있다。

【朴涌培기자】

교회안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3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886-1198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주일대예배11:30 수요예배오후 7:30 영어예배 오전10: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후 2: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영어 1:00 주일성경 1:00 주일예배 2:00 수요예배 7: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751-3611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일 오후6시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 7:30 일요오후 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후 1:3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3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274-5305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인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V. 예배 8:30~9: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선교교회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성령교회	김관선	새벽예배(토,일):아침6시 금요성경공부:저녁9시 주일오후 2:00	379 Kenneth Ave.	275-4650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犯行자백 진실아니다

朴尙恩양 살해사건 鄭載巴군 2회公判

任意자술서등은 是認

◇여유있는 미소를흘리며 공판정에들어서는 鄭載巴피고인。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상경여대생 朴尙恩양(21·부산산업대2년)살해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된 鄭載巴피고인(21·仁川I대행정학과3년)에 대한 2회공판이 2일상오10시 서울지법東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梁慶俊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검찰측 직접심문과 변호인측 반대심문이 있었다。

이날 검찰직접심문에서 鄭피고인은 범행자체에 대해서는 자신이한일이 아니라고부인하면서도 여러차례에 걸친 진술서、자술서등이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임의로 이뤄진것은 시인하는 모순을 보였다。

鄭피고인은 이날 범행을자백한것은 사실이나『그렇게 했다고 꾸며서 진술했을뿐』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도했다。

鄭피고인은 지난 1월16일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은뒤 趙검사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반응이 있거나▲사건 당일 숙부집에 들른 사실이 목격자가 나타나고▲사건 당일빈 증명되면 범행을 자백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었으나 1월21일 검찰측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보러가자고 했을때 이미 자백을 결심한 뒤였다고 진술하고 그러나이진술은 진실이아니었다고주장했다。

鄭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심문에서 여러수사관들이 여관에 데려다놓고 번갈아 가며 심문하고 범행을 추리해 들려주며 마치 자신이 한것처럼 자백을 유도했다고 말하고 심한 고문은 아니었지만 몽둥이로 3~4차례 물구나무서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鄭피고인의 가족、숙모등 80여명이 방청했는데 鄭피고인은 검찰측심문에서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태도로『그렇게 꾸몄다』『그렇게 말한적이 있다』『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했으나 변호인측반대심문에서는 똑똑하게 답변했다。

가짜 預金통장발행 농협직원이 가로채

【木浦】전남 진도경찰서는 2일 예금주에게 가짜통장을 만들어주고 현금 3백만원을 가로챈 珍島郡古郡面 동진단협 안농분소 직원 韓錫大씨(32)를 사기혐의로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韓씨는 지난해 12월17일 李正潤씨(61·珍島郡古郡面덕병리)가 예금시켜 달라고 맡긴 3백만원을 농협에 입금시키지않고 李씨에게가짜통장을발급해준뒤 이를 가로챈혐의다。【聯】

근로자印章盜用 대부

3백만원 가로챈 勞組간부 구속

【光州】광주지검 수사과는 2일 노조원들의 명의를 도용、새마을금고에서 대부금을 빼내 가로챈 전남 한운노조 長城고려시멘트 연락사무소장 김기열씨(37)를 업무상횡령·배임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장성고려시멘트 한운노조 새마을금고 대부담당직을 맡고있으면서 지난 80년10월29일 조합원 고두석씨(35)가 맡긴 인장을 도용、고씨이름으로 3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것을 비롯、지금까지 조합원 13명의 인장을 몰래 사용해 2백94만4천9백원을 빼돌린 혐의다。【聯】

미니버스 不法허가싸고 收賂혐의

등록사업소 3係長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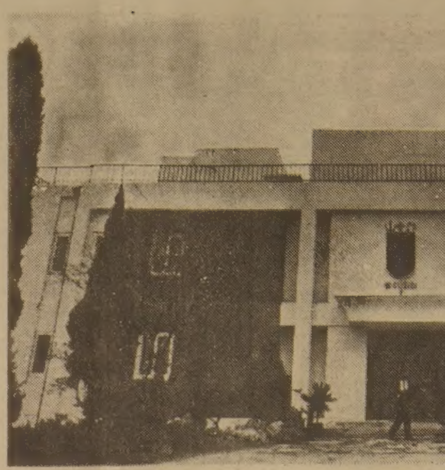
서울지검특수부는 2일서울시자동차등록사업소3계장 金鍾玄씨(46)를 가중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같은과직원金文植씨(27)등 2명을 같은혐의로 입건하는한편 바희수씨(42·같은과직원)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한대당 20~30만원씩받고 12인승 미니버스의 자가용허가를 받도록해준 브로커7명을 적발、金誠淳씨(31)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6명을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자동차등록사업소 3계장金씨등 공무원들은 운수사업법상 미니버스를 자가용으로 사용하려면승차수용증명을 위한 갖은서류와 증명서등을 제출해야하는데도 구비서류없이 브로커들로부터 1대당 5만원씩 모두 1천여만원을받고 2백대를 자가용으로 사용토록 허가서를 발급해준 혐의다。또 브로커7명은 차주들로부터 1대당 20~30만원씩을 받아 공무원들에게 5만원씩을뇌물로주어왔다는것이다。

說得과 참회…「原州의4일」

釜山放火사건 文富軾과 金恩淑 숨을곳은 없었다


◇文富軾과 金恩淑이 은신했다 자수한 가톨릭 原州교구 가톨릭교육원。

聖職者로서 告發못해

동료神父와 協議、自首권유

崔基植신부

분별없는 좌경의식을 고집、미국사람들이 일하고있는 문화원에 불을질러 국내외에 불필요한 파문을 일으킨 文富軾(23)과 金恩淑(24)은 原州에 숨어있던 3박4일동안 신부의 권유를받고 번민끝에 자수의 길을택해 사건은 참회로 끝을 맺었다。이들은 부산을 빠져나온 이후 水原과 서울을 거쳐 교묘히 原州까지 피신하는데 까지는 성공했으나 시시각각으로 좁혀드는 경찰수사망、사회의 감시망에 쫓기다못해 교파가 다른 천주교에 까지가 은신처를 구하려 했고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우선시켜야 한다는 합리적인 판단에 설득돼 자신의 죄를 책임지는 길을 택한 것이다。

文 미장원서 長髮자르고 變裝도

◇부산 美文화원 방화사건의주범 文富軾과 金恩淑의 자수경위를 밝히고있는 崔基植신부。

이들이 천주교原州교구청을 찾은것은 지난29일하오。평소 존경하던 池學淳주교를 찾아 은신을 부탁하려 했으나 池주교가 해외여행중이어서 原州교구사무국장 崔基植신부(42)를 만났다。崔신부는 가톨릭농민회 原州직구의 지도신부이기도 하고 정의사회구현사제단의 일원이기도 해서「도움」이 가능할것으로 판단한 모양이었다。

崔신부는 일단 이들을原州市鳳山洞 한적한곳에있는 가톨릭교육원에 거처를 마련해주었다。

『전국어디고 이들이 숨을 곳은 없다。더우기 국민이 용서치않는 방화사건을 저질러 지탄을 받고있는 범인들이다。그러나 성직자로서 당장 고발할수는 없다』崔신부의 고민은 모든 성직자의 고민일수 있었다。崔신부는 이사실을 金鍾泰총대리신부에게만 알리고 이런문제에서 판단이 빠른 서울천주교 漢江교회 咸世雄신부에게는 전화로 알렸다。

咸신부와 협의끝에 자수를 권유키로 결정한 崔신부는 文등에게 자수할것을 설득했다。

崔신부는 31일 서울로가 咸신부를만나 상의한후 다시 原州로 돌아와 이들의 자수의사를 확인、31일밤 수사기관에 이사실을 알렸다는것이고 수사기관은 1일상오 가톨릭교육원에있던 文등의 신병을 확보하게됐다。

文등의 범행경위와 도피경로는 아직 수사기관에서 정밀조사중이어서 상세한 자수경위도 차차 밝혀질것이지만 당사자들도 엄청난 고뇌끝에 자수결론을 내린듯하다。

文과 金은 사건당일인 19일상오 文은 태연히 학교에들러 학생과장과 자신의학적문제를 논의한뒤 20일에는 방화조 李美玉 비라살포조朴願植 崔忠彥과 만나『오늘중 안 헤어져있어야하니 몸조심을하자』고 다짐한후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신문과 라디오로 임시반상회등이 열리고 수사방향이 학원쪽으로 좁혀진다는 사실을알고 文은 도피를결심、서울로 급히 떠났다。

文은 미장원에서 장발을 짧은머리로 커트、변장을하고상경、형이 일하는 서울西大門區滄川洞 신라당구장에서 형과 30여분 귓속말을 나눈후 구석방에서 형이준돈으로 옷을바꿔입고 서울시내를 배회하다 23일엔 다시 釜山에내려갔다。

숨어지내던 애인 金恩淑과 만나 27일 水原에있는 金의 동생 자취방에서 만날것을 약속、25일 다시 서울로올라가 전철을타고 水原으로 잠입했다。

文은 金과 原州천주교구로 은신처를 옮기기로하고 29일 저녁 原州市 鶴城洞 가톨릭 原州교구 주교관에 들어간것이다。

이때는 범행이 탄로나기직전이었다。그러나 하룻밤을 자고난뒤 상황은 바뀌었다。釜山에서 행동대원이었던 李美玉 崔忠彥 朴願植등이 검거돼 자신들이 주범으로 밝혀져 얼굴사진과함께 지명수배된것이다。

"自首결심을 도와줬을뿐"

崔基植신부

【原州】文富軾(23)과 金恩淑(24)을 자수하도록 권유했던 천주교 원주교구교육원장 崔基植신부는 2일『이들은 처음부터 자수하려는의사를 가지고 찾아와 자수하도록 도와주었을뿐 별로 설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崔신부는 이들이 함께찾아와 처음에는 학생들이라고만 밝히다가 얼마후 모두털어놓으면서 자신들이 부산美文화원방화사건범인들이라고말하고 자수의뜻을 분명히했다고 전했다。

崔신부에 의하면 두사람은 처음부터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는 기색없이 밝은모습으로 교육원에찾아와 거의 외출을 하지않고 교육원내에있었다는것。【聯】

"崔신부와 2차례通話했다"

咸世雄신부

서울龍山區東部二村洞 천주교한강성당 咸世雄신부는 2일 文富軾과 金恩淑이 原州교구崔基植신부를통해 자수의뜻을비쳐 崔신부와 자수방법에대해 자세히 상의를한 것으로안다』고 말했다。

咸신부는 31일『서울에온 崔신부와 2차례전화로 통화했다』고밝히고『이때 崔신부로부터 文과金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대해 신앙적、인간적고뇌로 자수의뜻을 비쳤다는 말을 들었다』고말했다。

"聖職者본분에 합당한조치"

池學淳주교

한편해외여행에서 1일 귀국한 原州교구 교구장 池學淳주교는 2일 崔基植신부가 文富軾 金恩淑에게 잠시거처를 제공한것은 이들이 비록 범법자라하더라도 도움을필요로해찾아온이상 성직자로서의본분에합당한것으로본다』고밝혔다。

池주교는 또 대만에서 신문을 보고 방화사건이 일어난것을 알았고 필리핀에 체류할때 국제전화를 했으나 이들이 은신처를 찾고있다는 내용의 보고는 받지못했다고 말했다。

池주교는 이날상오 崔신부가 인사를 와 모기관에 조사를 받으러간다고 말했을때『비굴하지말고 소신껏이야기하라。사제로서 아무리 죄인이라하더라도 도움을줄수도 있는 일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丁淳喆구속

서울지검공안부는 2일 부산 美문화원방화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검거된 光州 미문화원방화사건의 주범 丁淳喆(27)을 계엄포고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현주건조물 방화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丁군에게 은신처를제공해준 원불교 영산출장소 사무장 김봉진씨(35)、丁군의친척 정종열씨(31·H은행敦岩洞지점대리)등 2명도 범인은닉죄로 구속했다。

공범 柳承烈군 잠적

文富軾 잡힌후…아버지 自首호소

【釜山】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때 유나백화점에서 불온전단을 뿌린혐의로 수배중인 柳承烈군(20·부산대공대기계과3년)의 아버지 柳慶洙씨(52·부산진구 부전동130)가 2일하오 아들의 자수를 권유하는 간곡한 호소문을 작성、부산시경에 보냈다。

유씨는 이호소문에서 아들에게『네가 빨리 자수해서 국가와 사회에 끼친 누를 사죄하는것만이 너도살고 우리집안도 잘되는 길일것이다』라고 당부했다。

2남1녀중의 장남인 유군은 집수리때문에 지난3월1일부터 동래구 수안동새동래맨션아파트의 이모집에서 기거하면서 지난 1일까지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받았으나 주범 文富軾이 검거됐다는 뉴스를 듣고 1일하오 5시께 집을나간이후 소식이 끊겼다는것。【聯】

가짜中共産우황청심환 나돌아

3만개「도깨비市場」에

原價10원짜리 5천~萬원에팔아…30代구속

가짜중공산우황청심환(牛黃淸心丸)이 시중에 나돌고있다。

2일 서울北部경찰서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된 金官中씨(33·서울道峰區道峰1洞148의5)는 지난2월23일부터 서울道峰區水踰洞2의69 중국음식점 양자강(주인 金官喆·28) 2층방에 밀납 포장제조기등을 갖추고 가짜우황청심환 3만7천3백여개(싯가1억9천여만원)를 만들어 이중 3만여개를 南大門시장일대의 속칭 도깨비시장 도매상인들에게 개당 2백50원에 팔아왔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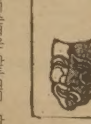
金씨는 지난 1월말 처고모부인 중국인 陳모씨(54·대만거주)로부터『가짜 우황청심환을 만들어 팔면 돈을 벌수있다』는 말을 듣고 陳씨에게 부탁、홍콩에서밀납포장기계와「牛黃淸心丸」이라고 새긴 철인。「北京同仁堂」포장지、설명서 견본등을 구한다음 우황청심환의 주성분인 牛黃과 麝香은 빼고 감삼 건강(乾薑) 당귀(當歸)、감초(甘草)백작약(白芍藥)등으로 가짜를 만들어왔는데 밀납포장에 철인까지찍어 육안으로는 진짜와 구별이 어렵도록 돼있다는것。

金씨는 1만여원어치의 한약재만으로 가짜 우황청심환 1천개를 만들어 개당원가가 10원에 불과했으나 시중에서는 홍콩에서 사온것처럼속여 개당 5천원에서 1만원에 거래되고있다는 것이다。

俗世와의 對話

조그만 책자 펴낸 朴三中스님

"囚人에게서 오히려 感化받는다"



서울貞陵에 있는 慈惠寺 朴三中스님(40·사진)이 최근「참새와 사형수」란 조그만 책자를 펴냈다。

『한죄수가 이른아침 교도소마당을 쓸다가 지붕에서 떨어진 참새한 마리를 줍는다。참새는 많이다친듯 가쁜숨을 몰아쉬며 죽어가고있다。

죄수는 잠시 망설이다 이참새를 집행을 몇일앞둔 감방에다넣어준다。이날부터 사형수는 친구를 얻는다。매일같이 품속에 참새를 감추고 먹이를 나누는동안 그는 한생명의 뜨거운 맥박을통해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얼마후 사형수는 깨끗하고착한 영혼을 찾고 형장의 이슬이 된다』

요즘 스님이 쓴책은 한두권이 아니지만 이책들이 대부분 스님들의 破戒행각기이고보면 朴스님의 책은 돋보인다。

그러나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것은 책이아니라 朴스님자신이다。그는 지난15년동안 전국교도소를 샅샅이 찾아다녔다。囚人들과 아픔을 같이했고 지금도 그 苦行의길을 묵묵히 걷고있다。

朴스님이 들려주는 囚人이야기는 무척 감동적이다。그들의 진실생활을 대하는동안 자신이 교화를 하는게 아니라 교화를 받는다는게 스님의 실토다。그는 지난76년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한사형수의 구명운동에 나서 무기로 감형까지 시켰던 장본인。

『당시 사형수에겐 73세된 노모가 있었지요。자식을 잘못키운죄는 에미에게 있으므로 사형이 집행되는날 함께 목숨을 끊겠다는 거였어요』。이 노모의 절규에 수많은 사람들이 母子구명운동에 가담했고 결국 감형운동은 성공했다。

朴스님은 교도소를 돌면서 뜻을 같이하는 많은 異教徒와 어울리고 협력했다。姜信明목사등 기독교인이 주동이된 사형집행유예탄원서에 자진해 참여하고 聖女데레사의 사랑에 감동했다。『머더·데레사가 하룻밤을 묵은 大邱희망원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불구걸인을 온몸으로 껴안고있는 그에게서 위대한 사랑의 현장을 보았지요』

朴스님은 불교가 아직도 너무나 세상을 등지고있다고 말한다。거리에서 나서 거리를 지키다가 깨우침을 얻은 부처님은 오늘의 우리불교는 거리로 나가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젊음을 바쳐서 병든영혼과 절망하는인생을 찾아다니는 朴스님의「그늘속에발길」은 현실참여를외치는 모든종교인들에게 시사하는바가 큰것같다。【李忠雨기자】

女性페이지

公園비둘기들도 겨울잠서 깨어나 봄노래를… 예년보다 기온이 높은가운데 포근한 봄날씨가 계속되고있다。겨울잠을 자던 自然도 기지개를 시작하여 마른나무가지마다 새순이 부풀어오르고、공원의 비둘기들도「구구구、구구구…」즐거운 봄노래를 시작했다。봄을 즐기려나온 한 꼬마는 아예 철책을넘어 비둘기들속에서 함께 놀고있다。【仁川자유공원에서 李昌淳기자찍음】

음식을 짜게 먹지말자

먼저 채소·우유 먹으며 食性 바꿔야

식초·겨자등 調味料로 代用도 방법

간장사용이 소금쓸때보다 減量 효과

FDA「소금警告」로 본 食單개선의 지혜

소금을「조용한 殺人者」로 규정、소금섭취 억제방안을 연구하기로한 美의학협회(AMA)와 연방식품의약국(FDA)의 발표는 우리의 식생활에 경종을 울려준다。FDA는 美國成人의 하루평균 소금섭취량은 적정량의 20배인 4천㎎이며 한국인은 미국인보다 10배이상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김치한접시에는 4천5백~6천㎎의 소금이 들어있다』고 밝히고있다。우리의 식생활에서「소금섭취를 줄이는 지혜」를 모아본다。

◇「조용한 殺人者」소금。우리식생활에서는 특히 소금의 지나친 섭취가 문제가된다。

짠음식이 고혈압、동맥경화증、심장병에 나쁘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없다。그러나 자신이 고혈압이나심장병등의 치료를 받고있으면서도 짠음식위주의 식단을그대로 고집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한편으로는 혈압강하제를 먹고、한편으론 짠음식을 먹는다면 치료효과는 나타나지않고 약의 부작용만 커지게되는 셈이다。

美FDA는 소금섭취억제방안으로 ①가공식품의 염분농도를 현저히 낮추고 ②더 나아가서 무염분 가공식품생산을 장려하며 ③시판되는식품에 염분농도를 명시하고 ④요리방법에서 소금첨가부분을 삭제할것등을 제시하고 있다。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차원의 소금섭취억제책이 나와야하겠지만 이에앞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위한 주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할 수 있다。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반찬들은 모두가「짭짤한 것」들이다。된장찌개、김치、조림、젓갈、장아찌등 모든 음식들이 다른나라의 요리에비해서 짜고 맵다。이런 반찬뿐 아니라 술안주나 군것질감도 짭짤해야 인기가있다。오징어、쥐치포、육포등이 모두 짠것들이고 오이나 상치등의 야채도 고추장、된장과 함께 먹기때문에 상당한 염분을 섭취하게 된다。

고혈압인 시어머니를 모시고있다는 주부 安貞淑씨(방배동 삼호아파트)는『어머니뿐만 아니라 온가족의 소금섭취를 줄이기위해 모든음식을 싱겁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싱거운 음식은 맛이 없다고 불평들을 하기때문에생각끝에 아침한끼는 빵을먹고 있다。빵、달걀(프라이나 반숙)、야채(파일·오이·당근·양상치등 있는대로)、우유로 아침을 차리는데 석달정도계속하는동안 가족들의 식성이 많이 달라진것같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토스터에 김치를 얹어먹거나、오이를 고추장에 찍어먹으려하던 가족들이 이제는 김치와 고추장없이 한끼를 먹을수있게 되었다는 것이다。이처럼 아침식사를 개선하고 나니「반찬」에대한 인식이 많이달라져서 아이들은 밥을 먹을때도 짭짤한 반찬없이 신선한 야채만으로식사를할수있게되었다고한다。

요리연구가 鄭晶惠씨는 식초、겨자등 자극성있는 조미료로 소금을 대신해 보라』고 조언한다。싱거운 음식으로는 비위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식초、겨자는 입맛을 돋우어주고 비위를 가라앉혀준다는 것이다。오이、상치등을 된장、고추장과 함께 먹는대신 설탕、식초、겨자등에 버무려 먹으면 소금섭취도 줄일수가 있다。

식품영양학자金淑喜교수(梨大)는『설탕은단맛을 내주는 代用食品이있지만 소금은 일반화한 代用食品이없기때문에 섭취량을 줄이려면 싱겁게 먹는수밖에 없다、짜게먹거나 싱겁게 먹는것은 습관에달린 것이므로 짠음식을 좋아하던사람도 싱거운 음식에 길들이면 짠음식을 저절로 싫어하게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金淑喜박사는『음식의 간을 너무 고혈압과 관련시켜 짭짤하고 맛갈스런 우리의 반찬을 무조건 위험시할필요는 없다고본다』고 말하고『미국에서 소금섭취가 그처럼 문제가 되는것은 고혈압이 그들에게 매우 흔하고 위협적인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사람들이 도시인들보다 훨씬 짜게 먹고있지만、고혈압은 오히려 도시인들에게서 더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金淑喜박사는『소금섭취가 문제가되는것은 소금중의 소금 성분 때문인데 소금은 화학조미료속에도 들어있으므로 화학조미료를 음식에 마구치면서 소금만을 조금넣는다면 큰 효과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간장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약18%、된장은 10%정도이므로 소금을 넣을때보다 간장을 넣으면 소금량을 줄일수 있다。또 똑같은 양의 소금을 넣더라도 음식이 차가운 상태에서는 짠맛을 더 강하게 느끼므로 음식에따라 소금량을 조절할수 있다。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신의상사
116 Tycos Dr.
☎ : 789-7544

식품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신용조합

한 인 신 용 조 합
641A Bloor St.W.(2nd Fl.) Tor.Ont. M6G 1L1
☎ : 533-9387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약국

돈 밀 약 국
전화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전화 : 368-2746 조 남 오

WILLER'S PHARMACY
전화 : 656-3351, 656-3247 양 둔 정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전화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여행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전화 : 746-0675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장의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master charge VISA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43, (R) 493-8792 송 창 섭

O. K. AUTO BODY
수리중 차대여, 모든 보험관계
138 SIXTEENTH ST.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366-2673, 366-2206

자동차 매매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E.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한방원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E.(Yonge St.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전화: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경명.주사.우황.진주.웅담.인삼.녹용등)
643A BLOOR ST.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Jamestown)박영숙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New York, U. S. A.)
전화 : 1-212-762-4694

학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 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전화: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1454 DUNDAS ST. E. SUITE 110
전화: 273-7300 MISSISS.

정필주 회계사무소
전 C.A.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608 전화:661-1819

최태권 종합회계사무소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 A Bloor W. ☎ : 533-735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전화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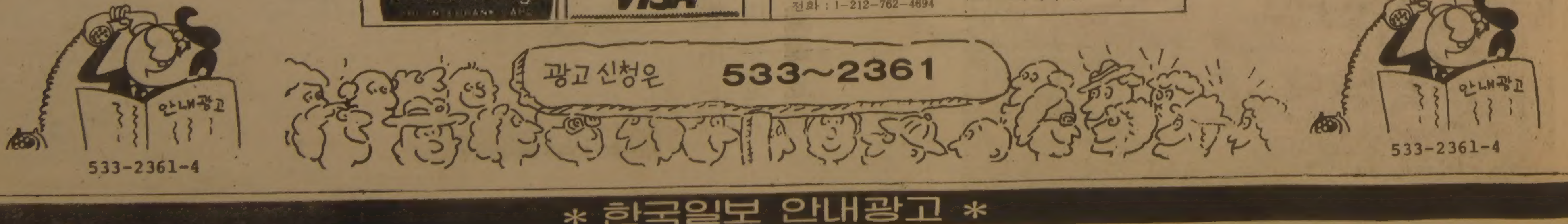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다년간의 경험으로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전화 : 746-6962 (Mr. Lee)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98 LAKESHORE BLVD.W.
전화:(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439-6277 Mr.박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맥스 밀크에서 일하실 캐셔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 278－4867

남자 주방 헬퍼와 여자 웨이트레스 구함.
628 BLOOR ST. W.

한국음식(밑반찬)에 조예가 깊으신분 연락바랍니다.
Full Time과 Part Time 가능
전화 : 749－0579

Baby Sitter (베이비 시터) 구함
전화 : 638－6380, 598－2210 Mr. 김

매니저 구함
1174 Morning Side Ave. Scarboro.(세파드 × 모닝사이드)
흥미계신분 내방 바랍니다.

지렁이 잡이 경험이 많은, Mrs. 윤 이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합니다. 특별우대함.
전화 : 291－4547

일요일에 가게 캐쉬어 하실분
(유경험자 원함) 미씨사가 지역
전화 : 828－0242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함
전화 : 499－4459, 299－1431

오리엔탈팔레스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전화 : 533－3545

Baby Sitter (베이비 씨터) 구합니다
전화 : 532－1054

구 혼

독신남. 대졸. 해군장교예편. 신장 175cm
체중 70kg. 재산있고 회사 중견사원역임.
독신녀(미혼 혹은 이혼녀) 원함. 기독교인이거나 앞으로 기독교를 믿으실분. 사진, 이력서 동봉.
연락처: 955 WARWICK CRT. #402.
(BURLINGTON, ONT. MR. LEE)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스토아와 2베드룸 포함한 건물 팝니다. Four Unit, Commercial(Two Unit Rent 하였음). 번화한 지역으로 오타와에서 35Mile 서쪽.(Arnprior).
가격 : $135,000 Mortgage : 12¼%
전화 : 1－613－623－6896 (월~토)

가게 급매(4 베드룸 건물포함)
주매상 : $3,500~$4,500
가격 : $84,000 + 스탁 (First Mortgage 13.5%.$51,000 Second Mortgage, Bank에서 $20,000 가능)
전화 : 1－383－8232

바튼지역에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4,300
리 스 : 10 Years
Call : Cliff or Joe for appointment
전 화 : 763－5161
Cimerman Real Estate Ltd. Realtor.

★코너에 위치한 상업. 가정집 포함한 드라이크리닝 사업. 13% 모개지. 좋은 가격에 팔고자 함.
★드라이크리닝에 필요한 일절 장비 팔고자 함. 중앙지역. 좋은 가격에 팔고자 함.
Call. Tony ☎ : 751－1947 7 a. m－7 p. m.

1981년형 16 Feet Fish Master Boat. Almost New. 최신장비 일절 갖춤. 아스킹: $6,500 꼭히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전화: 270－1981(오후6시이후 연락바람)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0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여자 혼자할 수 있는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급매. 시설비만 받고 매매할 예정임.(꼭히 관심있는 분 내방바람)
61 Main St.

생선가게 팝니다.(퀸스웨이×로얄욕)꼭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람)K & R(Sea Food)
☎ : 259－1585(Mr. Joe Bondreau)364－3883(Frank)

크레딧·카드를 使用 하세요.
한국일보의 広告料金 및 購読料는 여러분의 便利上 VISA 나 MASTER CHARGE를 利用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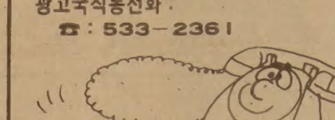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월~토 (9시 a.m.~ 9시 p.m) 꼭히 관심있는 분의 연락바람.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VARIETY STORE 시설과 스탁 급매
2607 Eglinton W.
전화 : 789－0501 Mr. Singh

Corner에 위치한 가게 세놓읍니다.
(St. Clair × Silverthorn)
1734 St. Clair. W. 전화 : 742－0434

타사업관계로 살림집을 포함한, 버라이어티·그로서리·드라이크리닝 사업을 할 수있는 가게, 미니멈 가격으로 급매코저함. 오전 10시~오후 8시. 전화 : 783－0134 Bobby.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기관및단체

- 총 영 사 관 : 598－4608
- 한 인 회 : 755－9288
- 노 년 회 : 755－8079
- 실업인협회 : 752－7771
- Y M C A : 536－1166
- 외 환 은 행 : 364－2890
- K A L : 862－8250
- 코리아타운 번영회 : 532－2727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전화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서판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R) 298－855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메리야스

곤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 : 248－2957(B) 247－6875(R)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ANNIE'S BEAUTY CARE CENTER
6093 Yonge St. (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백화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김 종 조 종합보험 ☎535－7200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임페리알 Life (김 홍 량) ☎482－0166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2R1 전화 : 759－9505 (5시이후)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전화 : 281－1677 이 영 화 (전 대학강사)

불 교

대 각 사
11 Dawson Ave. Tor.Ont. 전화 : 463－8998

불 광 사
288 Hownslow Ave. 전화 : 223－9152

선 련 사
46 Gwynne Ave. 전화 : 532－3491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전화 : 535－7772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무 지 개 칼 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빅·세븐
678 Bloor St. W. ☎ : 533－7966

Mister Oh for Men
☎ : 964－2606, ☎ 869－0589, ☎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366－0960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 × 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스포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 복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싸우나 설치, 진열장
전화: 676－1173, 769－9468 찬장등 가구제작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식 당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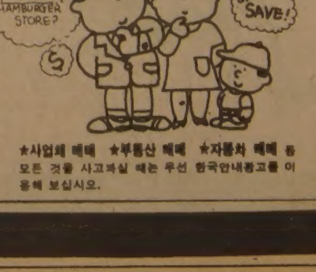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클 링 턴 하 우 스
693 BLOOR ST. W.
전화: 535－9541 김 영 규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5 일에 $ 13 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사업체 매매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등 모든 것을 사고파실 때는 우선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십시오.

＊ 한국일보 안내광고 ＊

2ND CLASS MAIL NO. 5248